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TV토론 평가 및 효과 연구

2014. 8.

수 행 기 관 : (사)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책임자 : 송종길(경기대 교수)

공동연구자 : 홍성철(경기대 교수)

오경수(경기대 교수)

요 약 문

지난 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국민이 자신의 지역행정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다. 때문에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국민적 축제의 마당이다.

그런데 이번 2014년 6월 4일 개최된 제6차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과거와 다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둔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과거 사뭇 다른 상황에서 치러졌다.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도 시끌벅적한 유세활동을 벌이기가 쉽지 않았다. 이른바 선거바람이 사라지면서 국민들은 광역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때문에 국민들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TV토론은 공직 후보자의 식견이나 공약 등을 유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보제공 수단이 되었다.

TV토론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후보자가 각자 자신의 의견,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상대 후보자를 설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3자인 유권자로 하여금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TV토론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1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의 TV토론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TV토론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주특별시와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가장 거주민수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를 1곳씩 선정, 그곳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TV토론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국지방동시선거의 TV토론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이 실제

TV토론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TV토론이 이뤄진 직후인 5월 30일부터 3일 동안 TV토론을 시청한 서울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2014년도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TV토론을 2가지 각도에서 접근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TV토론의 형식과 주제, 질문 및 답변의 심층성 등을 살펴보면서 TV토론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TV토론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토론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근거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37.7%에 달해 제시하지 않은 경우인 62.3%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그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낮은 근거제시율은 논리적 타당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V토론을 중계하는 방송사들은 TV토론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TV토론을 그다지 시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토론의 중계시간을 프라임타임이 아니라 오후 시간 혹은 심야에 배치하였다. 또한 번두리 시간에 배치함으로써 TV시청률의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에서도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KBS와 MBC는 공영방송을 표방하면서도 시청률만 최우선하는 편성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의제에서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지역경제, 개발, 일자리 등과 같은 경제문제 등에 많이 집중되었다. 더불어 정당 및 정치문제 대한 주제들도 많이 거론되었으며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흔히들 “관피아”로 표현되는 공직자들의 낙하산 인사, 사회전반적인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타 등 시의성 있는 질의와 답변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들이 오랫동안 출마를 고민해왔기 보다는 선거에 임박해서 출마를 결정하고 정당의 후보로 낙점 받아서 인지 심도 깊은 고민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질문과 답변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보다는 근거 및 자료 제시 없는 질문과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 답변에서도 단순응답이나 해명 등에 할애한 경우가 정책 제시 및 대안제시 등으로 이어진 것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TV토론 시청자 400명을 상대로, TV토론의 효과를 측정했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 56.3%는 TV토론이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들의 6%는 “매우 유익했다”로, 또 62.8%는 “다소 유익했다”는 등 약 68.8%가 유익하다고 답했다. 나아가 응답자의 69.1%는 TV토론회의 시청은 자신이 투표할 후보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은 유권자들이 TV토론의 필요성과 효과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TV토론을 통해 자신의 지지후보를 바꾸겠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으며 “기존 지지후보에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34%가 응답, 지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 “토론에는 실망했지만 후보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응답자도 38%에 달했다. 이는 TV토론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크게 이바지하지만 실제 지지후보자를 바꾸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TV토론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이지는 않다. 강력한 지지 후보가 있거나 정치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아직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망설이는 부동층에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 부동층의 최후 선택은 종종 투표의 결과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TV토론의 제한적 효과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현재 TV토론은 사회자와 후보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빠져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나 후보자들이 전달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식의 타운홀 미팅과 같은 TV토론 과정에서 유권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자의 권한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 사회자는 각 토론참여자들에게 균등한 시간배분을 조정하는 역할에 그치면서 후보자가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보다는 할애된 시간 안에만 이야기를 끝내도록 종용하는 실정이다. 이는 시간의 균등배분이라는 형식적 형평성 치우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는 형식적 시간배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토론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진행능력과 함께 주제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후보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TV토론회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TV토론회의 위상을 점검하는 일이다. 특히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사실 TV토론의 실시간 시청이라는 의미를 반감시키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아 TV토론이 정치적 사회화와 유권자들의 알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공론의 장이 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목 차

요약문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3
1. 연구목적	3
2. 연구문제	4
제2장 TV토론에 관한 기존논의	5
제1절 TV토론의 개념	5
제2절 TV토론의 역사	7
제3절 TV토론의 기능과 가치	8
제4절 TV토론 구성요소	10
1. 사회자	10
2. 토론방식	11
3. 토론의제	12
4. 토론방영시간	12
제3장 2014년 지방선거 TV토론 현황	14
제1절 TV토론 개최현황	14
제2절 TV토론의 형식	18
1. 광역자치단체장 TV토론 형식	19
2. 교육감 TV토론 형식	22
3. 기초자치단체장 TV토론 형식	25

제3절 TV토론의 진행: 사회자	28
제4절 토론 의제 분석	30
1. 광역자치단체장 TV토론 의제	30
2. 교육감 TV토론 의제	32
3. 기초자치단체장 TV토론 의제	33
제5절 토론의 질적 평가	34
1. 질문의 적합성 평가	34
1) 광역자치단체장	34
2) 교육감	36
3) 기초자치단체장	37
2. 응답의 적합성 평가	38
1) 광역자치단체장	38
2) 교육감	39
3) 기초자치단체장	40
3. 답변의 심층성	41
1) 광역자치단체장	41
2) 교육감	43
3) 기초자치단체장	44
제4장 6.4 서울시장선거 TV토론에 대한 효과분석	46
제1절 연구방법	46
제2절 TV토론의 효과분석 결과	49
1. 토론회 시청자들의 동기	49
1) 후보선택 시 고려요소	49
2) TV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	50
3)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시청 횟수	51

4) TV토론회 진행의 공정성	52
5) TV 신뢰도	53
6) TV토론회의 흥미성 및 유익성	53
2. TV토론 효과	56
1) 선거에 대한 관심 증가	56
2) 후보 결정과정에 대한 영향력	56
3) 지지후보의 변화	57
4)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58
5) TV토론이후 지인들과 대화의 증가	59
6) TV토론회의 실제 투표의도에 대한 영향	61
7) TV토론회 시청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치적 태도 관련 변인	64
제5장 결론 및 제언	70
참고문헌	74

표 목 차

<표 1> 6.4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개별 TV토론	15
<표 2> 6.4지방선거 교육감선거 후보개별 TV토론	16
<표 3> 기초자치단체장 TV토론	17
<표 4> 광역자치단체장 TV토론형식	20
<표 5> 광역자치단체장 토론유형별 이용 빈도	21
<표 6> 교육감선거 후보자들의 TV토론 형식	23
<표 7> 교육감 토론유형별 이용 빈도	24
<표 8> 기초자치단체장 TV토론형식	26
<표 9> 기초자치단체장 토론유형별 이용 빈도	28
<표 10> TV토론 사회자 및 직업	29
<표 11> 6.4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TV토론 주제	30
<표 12> 6.4. 지방선거 광역시도 교육감 개별 TV토론 의제	32
<표 13> 기초자치단체장 TV토론 주제수	33
<표 14> 6.4.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질문의 적합성 평가	35
<표 15> 6.4.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질문의 적합성 평가	36
<표 16>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TV토론자들의 질문의 적합성 평가	37
<표 17> 6.4.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의 응답유형	39
<표 18> 6.4.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들의 응답유형	39
<표 19> 기초자치단체장 TV토론의 응답수준 분석	40
<표 20>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응답의 심층성	42
<표 21> 교육감 후보응답의 심층성	43
<표 22>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응답의 심층성	45

<표 23> 6.4 서울시장선거에서 후보들의 TV토론 현황	47
<표 24> 설문참여자의 인구특성	48
<표 25> 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상관관계 분석	60
<표 26>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와 선거 투표 참여 의사 교차분석	61
<표 27> 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간 상관관계	62
<표 28> TV토론회 시청 횟수 및 시청 관심도와 선거정보 효과 상관관계	63
<표 29> TV토론회 시청 횟수 및 시청 관심도와 정치적 효능감 상관관계 분석	65
<표 30> TV토론회 시청 횟수 및 시청 관심도와 선거 관심도, 정치지식 수준, 투표 참여 의향 상관관계 분석	66
<표 31>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회 시행 횟수의 충분성 교차분석	67
<표 32>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회 진행 시간의 적절성 교차분석	67
<표 33>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진행 방식 만족도 교차분석	68
<표 34>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진행의 공정성 교차분석	69

그 립 목 차

[그림 1] 서울시장선거 후보 선택 시 최우선 고려사항	50
[그림 2] 후보자 TV토론회 관심도	51
[그림 3] TV토론회 시청 횟수	51
[그림 4] TV토론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52
[그림 5] 지상파 방송 신뢰도	53
[그림 6]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	54
[그림 7] 후보자 TV토론의 유익성	55
[그림 8]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한 선거 관심도	56
[그림 9] TV 토론회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57
[그림 10] 후보자 TV토론회 이후 지지후보의 변화	58
[그림 11] TV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59
[그림 12] 후보자 TV토론회 이후 지인들과 관련 대화 여부	60
[그림 13] TV토론회의 다양한 선거정보 효과	6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지난 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5차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물론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는 아직 짧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을 이뤘던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국민이 자신의 지역행정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다. 때문에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국민적 축제의 마당이다. 그러나 이번 2014년 6월 4일 개최된 제6차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과거와 다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둔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과거 사뭇 다른 상황에서 치러졌다.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도 시끌벅적한 유세활동을 벌이기가 쉽지 않았다. 이른바 선거바람이 사라지면서 국민들은 광역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때문에 국민들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TV토론은 공직 후보자의 식견이나 공약 등을 유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보 제공 수단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토론은 논쟁의 한 형태로서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입각하여 참여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 토론은 특정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개인이

나 집단이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제3자에게 우열을 가리게 한다(이효성, 1997). 이런 점에서 토론은 토의(discussion)과 구별된다. 토의는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통해 일정한 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집단적 협의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토론은 의견대립 상황을 전제로 참여자가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제3자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토론은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가장 이상적인 선거캠페인 형태는 후보자가 유권자와 직접 대면하여 자신의 신념, 정책, 공약 등을 제시하며 유권자와 토론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와의 토론을 통해 자신이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선거방식은 성립되기 어렵다. 제한된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가 모든 유권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후보자가 많은 유권자를 만나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이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후보자는 자신의 의견, 정책, 공약을 최대한 많은 유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선거유세 방식에 의존하였다.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아직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을 동원하는 선거캠페인 방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는 후보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논란을 일으켰다. 따라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많은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으로 TV토론이 주목받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TV토론이 도입되었다. 오늘날 TV는 전국에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TV토론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후보자가 각자 자신의 의견,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상대 후보자를 설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3자인 유권자로 하여금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TV토론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1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의 TV토론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TV토론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주특

별시와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가장 거주민수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를 1곳씩 선정, 그곳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TV토론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국지방동시선거의 TV토론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이 실제 TV토론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TV토론이 이뤄진 직후인 5월 30일부터 3일 동안 TV토론을 시청한 서울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TV토론의 발전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후보자 사이에 벌어진 TV토론의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TV토론 진행방식, 진행시간, 방영시간 등 기초적인 정보와 더불어 토론형식, 질의 및 응답 유형, 질문의 주제 및 구체성, 답변의 충실성, 적합성 등을 분석했다.

둘째, TV토론에 대한 유권자의 시청현황과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공직후보자의 면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TV토론은 유용한 선거캠페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TV토론 시청을 외면한다면 TV토론 제도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TV토론을 유권자들이 얼마나 시청하고, 그러한 시청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는데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 5월말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TV토론을 시청한 서울지역 유권자 4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문제

TV토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최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TV토론과 교육감선거 TV토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TV토론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 시도단체장 및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TV토론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가?

연구문제 2: 6.4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에 있어서 사회자는 누구였으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6.4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에서 나타난 토론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TV토론에서 질문과 답변의 적절성 및 충실성, 심층성은 어느 정도인가?

다음으로 TV토론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시장 선거 TV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청여부 및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5: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TV토론 시청 동기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6: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전 지지후보결정과정에서 TV토론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문제 7: TV토론 시청은 실제 투표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문제 8: 6.4 지방선거 TV토론 진행시간의 적절성과 토론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제 2 장 TV토론에 관한 기존논의

제1절 TV토론의 개념

현대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선거기간 중 가장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후보자가 공직을 맡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정책과 경력, 능력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후보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거나 정치 광고 등을 통해 유권자와 접촉하려고 한다. 이러한 고비용 선거과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TV토론이다.

TV토론이란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 후보자들이 실시간 토론을 벌이고 이를 TV로 중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후보자들이 벌이는 토론에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첫째, 아카데미식 토론이다. 아카데미식 토론은 먼저 논란이 되는 이슈가 제시되면 후보자가 각자 찬반 의견을 제시한다. 이때 한쪽 후보자가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반대쪽 후보자는 앞의 의견을 반박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다만 양쪽은 상대방에게 직접 질문과 반박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아카데미식 토론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슈에 대한 양쪽 주장의 차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유권자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쪽 주장 사이의 우열성을 비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주장의 진위여부나 우열성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토론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직접적인 질문과 반박의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토론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오례건식 토론이다. 이 형식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한 후보가 연설을 하면 뒤이어 상대 후보가 반박 연설을 하고, 다시 처음 후보가 재반박 연설을 하는 방식이다. 이런 토론형식이 갖는 장점은 주어진 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고, 각 후보자가 공정한 발언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론의 기본골격이 연설 형태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자칫 유권자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고,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진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공동 기자회견식 토론이다. 이 형식은 후보자의 연설로 토론이 시작되고, 이어 사회자 및 패널리스트가 질문하면 후보자가 답변한 후 상호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공동 기자회견식 토론은 패널리스트가 준비한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고, 후보자의 순발력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그러나 후보자 간 대결보다는 후보자와 사회자 또는 후보자와 패널리스트 간 대결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다양한 이슈를 다루다보니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다. 넷째, 1인기자형 토론이다. 1인기자형 토론은 후보자 1명만을 불러서 사회자와 패널리스트가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토론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후보자 사이에 일정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종 사용되는 방식이다. 다섯째, 후보자간 직접토론 방식이다. 이 형식은 사회자의 진행 하에 후보자가 직접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자의 역할은 발언순서, 시간제한 등에 국한된다.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다. 이 형식의 장점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고,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주장을 서로 비교하는데 용이하다. 그러나 토론의 내용이 자칫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고, 유권자의 토론에 대한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시민포럼식 토론이다. 이 형식은 유권자와 후보자간 토론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유권자가 직접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후보자와 토론을 벌인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엄격한 토론형식에서 벗어나 토크쇼와 같이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지명하여 토론을 벌이기 때문에 각 후보자의 발언 기회에 대한 공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후보자가 참여하는 TV토론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는 TV토론이 개최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제시된 토론형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토론형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한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면, 상대 후보자가 이를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오레건식 토론방식 그리고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직접 질문하고 상대 후보는 이를 반박하며 처음 후보자가 다시 재반박하는 직접토론 방식 등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유권자는 이러한 TV토론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후보자들 중에서 누가 공직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판단하게 된다(박기순, 1998).

제2절 TV토론의 역사

공직후보자들의 TV토론은 지난 196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공화당의 닉슨과 민주당의 케네디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TV토론을 벌인 이후, TV토론은 가장 중요한 미디어 이벤트로 인정받고 있다(McKinney & Carlin, 2004). 당시 TV토론은 1회에 1시간씩 4회에 걸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이 토론과정에서 두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만 취했고 서로의 주장에 대한 논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가짜토론(counterfeit debate)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받았다(박기순,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 TV토론에 대한 반향은 엄청났다. 적어도 미국인 7,000만 명 이상이 1회 이상 TV토론을 시청했으며 시청자들의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1964년과 1968년, 197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TV토론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해가 상충되면서 끝내 TV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

TV토론은 16년이 지난 1976년 공화당 포드 후보와 민주당 카터 후보가 맞붙었던 대통령선거 재개되었으며, 이후 1980년 카터 대통령과 공화당 레이건 카터 후보, 1984년 레이건 대통령과 먼데일 민주당 후보, 1988년 부시 부통령과 듀카키스 민주당 후보, 1992년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민주당 후보, 페로 무소속 후보, 1996년 클린

턴 대통령과 돌 공화당 후보, 2000년 고어 부통령과 부시 공화당 후보, 2004년 부시 대통령과 케리 민주당 후보, 2008년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매케인 공화당 후보, 2012년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공화당 후보 등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TV토론은 미국 대통령선거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TV토론의 성공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도 지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TV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에서 당시 4개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개별적 토론회를 개최하고 CBS라디오를 통해 생중계했으며 공중파 텔레비전에서는 이를 녹화중계 하였다. 하지만 이는 후보자들 간의 상호토론이 아니라 각 정당 후보에 대한 개별적 토론회라는 한계점을 지녔다. 이를 극복한 것이 1995년 개최된 서울시장 후보자간의 TV토론이었다. 5차례에 걸쳐 열린 TV토론에서는 민자당 정원식 후보, 민주당 조순 후보, 무소속 박찬중 후보 사이에 열띤 공방이 벌어지면서 유권자들에게 TV토론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송종길, 2006). 이후 TV토론은 후보자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개인과 정책을 홍보하는 기회로, 유권자들에게는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평가하는 기회로 자리 잡았다(송종길, 2006; 양승찬, 2003). 이에 따라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선거법에 의한 독립기구로 상설화하고 선거기간 중에 1회 이상 TV토론을 개최토록 하는 TV토론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권혁남, 2010). 이듬해에는 토론 및 대담회 실시 대상을 구.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하여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에서 TV토론을 법제화했다.

제3절 TV토론의 기능과 가치

공직후보자들의 TV토론은 지방선거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실 TV토론에 대한 연구

는 주로 대통령후보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가령 송종길·박상호(2009)는 지난 2007년 열린 제17대 대통령 후보 TV토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면서 TV토론 시청 이후 “지지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는 응답자는 많아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TV토론시청은 “새롭게 좋아하는 후보가 생겼다”나 “좋아하는 후보가 바뀌었다” 등과 같은 태도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지지후보에 대한 태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문성철·양문희(2009)는 유권자들의 TV토론 시청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선거 참여의사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TV토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후보자에 대한 태도(지지도)의 변화, 태도의 강화, 선거이슈에 대한 학습,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화 기능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이다(이준웅, 2003). 가령, 이준웅(1999)의 연구에서는 시청동기와 TV토론에 대한 관심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후보정책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정치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TV토론회는 후보자들의 토론이 게이트키퍼 과정 없이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나 주관 언론사의 사회자가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최대한 차단하여 정책대결을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투명하고 깨끗한 지출과 검증이 가능한 선거공영제의 정착과 고비용 정치를 타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윤종빈, 2010). 정성호(2012) 역시 TV토론은 후보자간의 정책대결을 지향해서 유권자의 표심을 결정짓는 자료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TV토론의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토론방식이나 진행에서의 기계적 운영으로 말미암아 후보들의 뉘뉘이를 드러내고 정책의 차별을 드러내지 못하기에 유권자들의 TV토론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TV토론은 매우 귀중한 자기홍보의 수단이 된다. 인지도가 높으면 자신의 높은 인지도를 유지,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반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후보는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기회인 셈이다(김연중, 2008). 더불어 공직후보자들은 TV토론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권성욱, 2008).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개발과 함께 상대방의 공격에 대비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의 문제점 및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지방선거에서의 TV토론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권혁남(2011)은 전라북도 도민 510명의 TV토론효과를 분석하는 글에서 비록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낮지만 TV토론을 관심 있게 시청하는 경우에는 정치효능감은 물론이고 선거관심도와 선거 대화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TV토론의 관심 시청자뿐만 아니라 투표참여의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종길(2006)은 서울시장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TV토론 시청동기를 “적극적인 선거참여”, “후보자 선택 및 평가”, “후보평가와 관련된 정보 취득” 등의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TV토론은 속의 민주주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권자들의 수요에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구교태, 김관규, 이준웅(2007)의 연구에서도 TV토론은 지방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이슈나 이미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TV토론 구성요소

1. 사회자

TV토론은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토론위원회(DPD: 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에서 토론회를 주관하고, 방송사가 편집 없이 중계하는 형식이다. 사회자는 PBS의 짐 레러(Jim Lerner)처럼 공정성을 인정받는 현직 언론인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 토론회 사회자가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으면 토론의 관심이 후보자보다는 오히려 사회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3대 네트워크인 ABC, CBS, NBC의 앵커는 TV토론

의 앵커에서 고려대상이 안된다(정성호, 2010).

토론회 사회자 선정에서는 무엇보다 정파성이 강한 앵커는 배제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미국 대선 TV토론회 사회자 선정과정에서도 Fox news와 MSNBC의 진행자들은 정파성을 이유로 배제됐다(박 현, 2012). 국내의 TV토론은 그 성격에 따라 사회자가 달랐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TV토론의 사회자는 주로 언론인들로 구성되는 반면 지역 TV토론회에서는 대부분 지역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되는 경향을 지녔다(송종길, 2002). TV토론의 사회자는 언론인, 대학교수, 명망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사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이끌 수 있으면 된다(이성완, 2002). 하지만 국내 TV토론의 경우에서 사회자들은 후보들이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고나 일방적인 네거티브전략을 펼치더라도 이를 충분히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권혁남, 2010).

2. 토론방식

TV토론 방식이란 공식후보자들이 TV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TV토론 방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카데미식 토론, 오레건식 토론, 공동 기자회견형(Joint press conference), 1인 기자형 토론, 후보자간 직접토론, 시민포럼식 토론(Town hall meeting)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TV토론 형식을 결정짓는 원인 중에 하나로 양당제도를 꼽는다. 양당제도는 한 이슈에 관한 상반된 의견을 놓고 공박하는 토론의 극적 구성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이동신, 2004). 각 후보자 개인의 이미지 역시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어느 정도 맞물려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TV토론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자들이 매번 다르고, 정당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특정 토론형식이 우세한 것은 아니다.

3. 토론의제

토론의제는 획일적이지 않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토론의제는 해당 광역시도의 관심사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요이슈가 발생하면 토론주제는 시의적 주제가 지배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현안 및 유권자들이 후보자들 검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토론의제 선정과정에서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방송사의 토론의제선정위원회나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비록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시청률을 항상 고민해야하는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요인들이 가급적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성호(2010)는 2010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과학, 사회, 문화가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였고, 여성/인권, 교육 등의 이슈는 소외되었다고 적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졌던 2010년에는 교육감선거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이슈가 대두된 반면 정작 시도지사 선거에는 지역현안이 중심이슈였다고 진단한다.

4. 토론방영시간

유권자들이 TV토론의 영향을 받아 지지후보의 선택이나 지지후보를 변경한다는 TV토론 효과의 기저에는 유권자들이 TV토론을 눈여겨본다는 전제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TV토론은 유권자들이 즐겨보는 시간에 방영해서 제도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TV토론은 프라임타임(오후 8시~11시)보다는 오전이나 심야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방송시간 분석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의 중계방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가 가장 많았으며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는 거의 편성되지 않았다(이종희·오지양, 2010). 서복경(2012)은 최근 들어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송국들의 편성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9.8%에 불과했던 프라임타임 편성비율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9.7%로 확대
되었다고 밝혔다.

제 3 장 2014년 지방선거 TV토론 현황

제1절 TV토론 개최현황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TV토론에 참여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모두 54명이었다. 물론 소수당 출신 후보이거나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배제되거나 비초청형식으로 대담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가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홍정식 새정치당 후보는 배제된 채, 정몽준 (새누리당),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홍 (통합진보당)의 3자만이 초청되어 TV토론에 참여했다. 또 충청남도지사 선거TV토론에는 정진석 새누리당 후보와 안희정 새정치국민연합 후보만이 참여했으며 김기문 무소속 후보는 혼자 13분가량의 대담프로그램에만 참여했다.

이번 지방선거 TV토론에서는 후보 3명이 토론에 참여한 경우가 11회로 전체 18회(제주2회 포함)의 61.1%에 달했다. 반면, 양당의 후보자만이 참여한 경우는 모두 2곳이었으며, 4명의 후보자가 참여한 곳은 4곳, 5명의 후보가 동시에 참여가 이뤄진 곳도 1곳이었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 TV토론은 5월 24일, 전북도지사 후보들의 토론을 시작으로 26일(서울, 부산, 대구, 세종)과 27일 (인천, 광주, 충북, 경북, 제주) 28일 (전남), 29일 (경기, 강원, 대전, 경남, 충남, 제주)에 열렸다. 제주도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2회에 걸쳐 열렸으며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각 1회씩만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시간대를 살펴보면 모두 15번의 TV토론회가 오후 11시 이후에 개최, 중계되었으며 세종과 전남, 충북도지사의 TV토론회만 이보다 빠른 오후 6시20분, 오후 9시 20분, 오후 10시 등에 시작되어 사실상 유권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유권자를 배제하는 시간대에 방영되었다. 중계한 방송국의 경우 KBS와 MBC가 각각 9회씩이었다.

<표 1> 6.4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개별 TV토론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시간	방송국
서울	정몽준(누), 박원순(민), 정태홍(통)	5월 26일 (월)	23:15-00:45	MBC
부산	서병수(누), 오거돈(무), 고창권 (통)	5월 26일 (월)	23:15-00:45	KBS
대구	권영진(누), 김부겸(민), 송영우 (통), 이원준 (정), 이정숙(무)	5월 26일 (월)	23:15-00:45	MBC
인천	유정복(누), 송영길(민), 신창현 (통)	5월 27일 (화)	23:10-00:40	KBS
대전	박성효(누), 김창근(통), 권선택(민), 한창민 (정)	5월 29일 (목)	23:10-00:40	KBS
광주	이정재(누), 윤장현 (민), 윤민호(통), 강운태(무)	5월 27일 (화)	23:10-00:45	MBC
울산	김기현(누), 이상범(민), 조승수(정), 이갑용(노)	5월 27일 (화)	23:10-00:40	MBC
경기	남경필(누), 김진표(민), 백현종 (통)	5월 29일 (목)	23:10-00:40	KBS
강원	최홍집(누), 최문순(민), 이승재(통)	5월 29일 (목)	23:10-00:40	KBS
충북	윤진식(누), 이시중(민), 신장호(통)	5월 27일 (화)	22:00-23:30	KBS
충남	정진석(누), 안희정(민)	5월 29일 (목)	23:10-00:25	MBC
전북	박철곤(누), 송하진(민), 이광석(통)	5월 24일 (토)	23:15-00:35	MBC
전남	이중효(누), 이낙연(민), 이성수(통)	5월 28일 (수)	21:20-22:40	KBS
경북	김관용(누), 오중기(민), 윤병태(통), 박창호(정)	5월 27일 (화)	23:10-00:40	KBS
경남	홍준표 (누), 김경수(민), 강병기(통)	5월 29일 (목)	23:15-00:35	MBC
제주1	원희룡(누), 신구범(민), 고승완(통)	5월 27일 (화)	23:10-00:40	MBC
제주2	원희룡(누), 신구범(민), 고승완(통)	5월 29일 (목)	23:10-00:40	KBS
세종	유한식(누), 이춘희(민)	5월 29일 (목)	18:20-19:15	MBC

교육감 선거의 TV토론 역시 광역 시도 단체장의 TV토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 교육감 선거를 위한 TV토론의 경우 오전에 방영하거나 밤늦게 방영되는 등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TV토론을 중계했다는 형식적인 측면의 접근을 했다. 그러다보니 방영시간이 오전 7시를 비롯해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1시 20분, 밤 10시, 밤 10시 10분, 밤 11시 10분, 밤 11시 15분 등으로 흩어졌다. 실제로

대부분의 TV토론회는 밤 11시 이후에 개최되면서 선거에 관심 많은 소수의 시청자들만이 TV토론을 볼 수 있는 환경에 놓였다.

<표 2> 6.4지방선거 교육감선거 후보개별 TV토론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시간	방송국
서울	고승덕, 문용린, 이상면, 조희연	5월 23일 (금)	22:00-23:40	KBS
부산	김석준, 박맹언, 임혜경, 정승윤	5월 27일 (화)	23:10-00:40	MBC
대구	송인정, 정만진, 우동기	5월 23일 (금)	13:20-14:20	MBC
인천	김영태, 이청연, 안경수, 이분수	5월 23일 (금)	10:00-11:45	MBC
대전	최한성, 설동호, 김동건, 한송동, 정상범, 이창기	5월 27일 (화)	23:10-00:40	MBC
광주	장휘국, 양형일, 윤봉근, 김왕복, 김영수	5월 29일 (목)	23:10-00:40	KBS
울산	김석기, 김복만, 권오영, 정찬모	5월 29일 (목)	23:10-00:40	KBS
경기	최준영, 이재정, 박용우, 김광래, 정종희, 조전혁	5월 26일 (월)	10:00-11:45	MBC
강원	민병희, 김인희, 김선배	5월 27일 (화)	23:10-00:40	MBC
충북	김병우, 장병학, 김석현, 손영철	5월 24일 (토)	23:15-00:35	MBC
충남	명노희, 심성래, 서만철, 김지철	5월 27일 (화)	23:10-00:40	KBS
전북	김승환, 유홍렬, 신환철, 이미영	5월 28일 (수)	22:00-23:10	KBS
전남	정만채, 김동철, 김경택	5월 25일 (일)	07:00-08:10	MBC
경북	안상섭, 이영우, 이영직	5월 29일 (목)	23:10-00:40	KBS
경남	고영진, 박종훈, 권정호	5월 28일 (수)	22:10-23:30	KBS
제주	이석문, 양창식, 고창근, 강경찬	5월 26일 (월)	23:15-00:45	KBS
세종	홍순승, 오광록, 최교진, 최태호	5월 26일 (월)	13:00-14:30	KBS

본 분석에서 기초자치단체장 TV토론은 전체 15개 지역 중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7곳(46.7%)에서 양당 후보간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양당 후보간의 TV토론은 인천 부평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 전북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1시간 15분~20분정도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4곳에서는 모두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등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TV토론은 11곳이 공중파에서 또 4곳이 지역케이블 TV에서 중계하였다.

<표 3> 기초자치단체장 TV토론

지역	후보자	개최일자	시간	방송국
서울 송파구청장	박춘희(누), 박용모(민), 김현중(통)	5월 28일 (수)	21:00-22:20	송파C&M
부산 해운대구청장	백선기(누), 윤준호(민), 김대현(통)	5월 22일 (목)	15:00-16:10	MBC
대구 달서구청장	곽대훈(누), 김학기(민)	5월 27일 (화)	14:00-15:00	MBC
인천 부평구청장	박운배(누), 홍미영(민)	5월 28일 (수)	21:30-22:45	CJ헬로비전
광주 북구청장	박찬호(누), 송광운(민), 정형택(통)	5월 24일 (토)	23:15-00:25	MBC
대전 서구청장	박환용(누), 장종태(민)	5월 27일 (화)	13:00-14:00	KBS
울산 남구청장	서동욱(누), 김진석(통)	5월 28일 (수)	19:30-20:30	KBS
경기 남양주시장	이석우(누), 김한정(민), 조병환(무)	5월 27일 (화)	10:00-11:08	C&M
강원 원주시장	원경목(누), 원창목(민)	5월 26일 (월)	23:15-00:15	KBS
충북 충주시장	조길형(누), 한창희(민), 최영일(무)	5월 28일 (수)	19:20-20:25	KBS
충남 아산시장	이교식(누), 복기왕(민)	5월 27일 (화)	22:00-23:20	티브로드
전북 익산시장	이한수(민), 박경철(무)	5월 29일 (목)	21:45-23:00	MBC
전남 여수시장	주철현(민), 김상일(통), 김충석(무), 김동채(무), 한창진(무)	5월 28일 (수)	11:00-13:00	MBC
경북 구미시장	남유진(누), 구민희(민), 김석호(무), 이재웅(무)	5월 26일 (월)	10:00-11:20	MBC
경남 김해시장	김정권(누), 김맹곤(민), 박봉열(통)	5월 27일 (화)	23:15-00:35	MBC

본 분석에 이용된 지역 중 지역케이블 TV가 중계한 곳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남양주시(이상 C&M), 인천 부평구청장(CJ헬로비전), 충남 아산시(티브로드) 등이었다. 공중파가 아닌 지역 케이블TV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TV토론은 지역케이블 TV입장에서는 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실상은 프라임타임이 아닌 번두리시간을 배정했다는 점에서는 공중파의 편성시간대와 차이점이 없었다.

제2절 TV토론의 형식

6.4지방선거의 토론형식은 지역적 특징은 없었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기본형식에 준하여 후보자들의 상호토론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TV토론 형식은 대체로 오프닝, 기조연설, 사회자공통질문, 상호토론, 마무리발언, 클로징으로 이어지는 기계적 구성이었다. 상호토론에서는 서로 주도권을 갖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 등 자유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경기도 남양주시장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간의 상호토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형식은 마치 해결제시, 정책중심의 토론처럼 보인다. 지적을 받았다. 대구 달서구청장 TV토론회에서는 상호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가운데 곽대훈 새누리당 후보와 김학기 새정치국민연합 후보가 동시에 발언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빚어졌다. 이는 토론회에 참여자가 2명인 상황에서 이들에게 최대한 상호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보인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지역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형식을 기본으로 삼아 60분~90분 정도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최 TV토론회는 2회에 걸쳐 진행된 제주도지사를 비롯 각 16개 시도에서 1회씩 진행되어 모두 1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들 TV토론회에서는 72.2%인 13곳에서 토론시간이 1시간 30분(90분)이었으며 4곳에서는 1시간 15분(75분), 또 1시간동안 진행된 경우도 1회 있었다.

1. 광역자치단체장 TV토론 형식

18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방송토론에서는 10개 유형의 토론유형이 총117회 사용되었다. 사회자 질문에 의한 토론방식은 총 67회(57.3%) 사용되었는데, 사회자 공통질문에 의한 토론방식에서 A1유형(사회자 공통질문-후보자 답변) 57회(48.7%), A2유형(사회자 공통질문-후보자 답변-사회자 보충질문-후보자 답변) 10회(8.6%) 사용되었다.

사회자에 의한 개별질문 토론방식은 총 9회(7.7%) 사용되었는데, 이 중 B1유형(사회자 개별질문-후보자 답변) 4회(3.4%), B2유형(사회자 개별질문-후보자 답변-타 후보자(1인) 반론-후보자 재반론) 3회(2.6%), B3유형(사회자 개별질문-후보자 답변-타 후보자(전체) 반론-후보자 재반론) 2회(1.7%) 사용되었다.

후보자 질문에 의한 토론방식은 총 41회(35.0%) 사용되었는데, 이 중 C1유형(1:1 후보자 질문-후보자 답변) 10회(8.6%), C2유형(1:1 후보자 질문-후보자 답변-타 후보 반론-후보자 재반론) 3회(2.6%), C3유형(모든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타 후보 답변) 25회(21.4%), C4유형(후보자 질문-모든 후보자 답변-후보자 반론) 1회(0.9%), C5유형(후보자간 자유토론) 2회(1.7%) 사용되었다.

질문자가 누구였던 질문-답변 방식은 A1, A2, B1, C1 유형으로 약 69.2%에 이른다. 이에 반해 후보자간에 반론-재반론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토론방식은 B2, B3, C2, C3, C4, C5 유형으로 약 30.8%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토론회가 후보자간의 상호토론 보다는 사회자-후보 간 혹은 후보-후보 간 질문-답변 방식에 치중했음을 보여준다.

<표 4> 광역자치단체장 TV토론형식

지역	개최일자	토론형식
서울	5월 26일 (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상호토론 ⑤상호토론1 (주도권 토론) ⑥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⑦사회자 공통질문2 ⑧마무리 발언 ⑨클로징
부산	5월 26일 (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상호토론1 (주도권 토론) ⑤사회자 공통질문2 ⑥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⑦사회자 공통질문3 ⑧상호토론3 (주도권 토론) ⑨사회자 공통질문4 ⑩마무리 발언 ⑪클로징
대구	5월 26일 (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상호토론1 (공약발표 후 후보자개별질문) ④사회자 공통질문1 ⑤상호토론2 ⑥사회자 공통질문2 ⑦상호토론3 (주도권 토론) ⑧사회자 공통질문3 ⑨마무리 발언 ⑩클로징 ⑪
인천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 ④사회자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⑤상호토론1 (공약발표 후 후보자개별질문) ⑥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⑦마무리 발언 ⑧클로징
대전	5월 29일 (목)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상호토론1 (주도권 토론) ⑤사회자 공통질문2 ⑥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⑦상호토론3 (주도권 토론) ⑧사회자 공통질문3 ⑨마무리 발언 ⑩클로징
광주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사회자 공통질문1 ③상호토론1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④상호토론2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⑤사회자 공통질문2 ⑥사회자 공통질문3 ⑦상호토론3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⑧상호토론4 (주도권 토론) ⑨마무리발언 ⑩클로징
울산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개별질문 ⑤상호토론1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⑥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⑦사회자 공통질문2 ⑧마무리 연설 ⑨클로징
경기	5월 29일 (목)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⑤후보자 공약발표 후 개별질문 ⑥사회자 공통질문2 ⑦상호토론 ⑧사회자 공통질문3 ⑨마무리 발언 ⑩클로징
강원	5월 29일 (목)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시청자) 공통질문2 ⑤상호토론1 ⑥사회자 공통질문3 ⑦상호토론2 ⑧(시청자) 공통질문4 ⑨사회자 공통질문5 ⑩마무리 발언 ⑪클로징
충북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 ④사회자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⑤상호토론1 (공약발표 후 후보자개별질문) ⑥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⑦마무리 발언 ⑧클로징

충남	5월 29일 (목)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공통질문2 ⑤사회자 공통질문3(후 후보자 개별질문) ⑥사회자 공통질문4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⑦사회자 공통질문5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⑧사회자 공통질문6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⑨사회자 공통질문7 ⑩마무리 발언 ⑪클로징
전북	5월 24일 (토)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개별질문1 ⑤상호토론1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⑥사회자 공통질문2 ⑦(시청자) 개별질문2 ⑧사회자 공통질문3 ⑨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⑩사회자 공통질문4 ⑪사회자 공통질문5 ⑫마무리 발언 ⑬클로징
전남	5월 28일 (수)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상호토론1(후보자 주도권 질문) ⑤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⑥사회자 공통질문2 ⑦상호토론3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⑧상호토론4 (주도권 토론) ⑨사회자 공통질문3 ⑩상호토론5(후보자 주도권 질문) ⑪마무리 발언 ⑫클로징
경북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공통질문2 ⑤상호토론1 (주도권 토론) ⑥사회자 공통질문3 ⑦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⑧사회자 공통질문4 ⑨상호토론3 (공약 발표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⑩사회자 공통질문5 ⑪마무리 발언 ⑫클로징
경남	5월 29일 (목)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상호토론1 (주도권 토론) ⑤사회자 공통질문2 ⑥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⑦사회자 공통질문3 ⑧상호토론3 (주도권 토론) ⑨마무리 발언 ⑩클로징
제주1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사회자 공통질문1 ③사회자 공통질문2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④(시청자) 공통질문3 ⑤사회자 공통질문4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⑥(시청자) 공통질문5 ⑦사회자 공통질문6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⑧사회자 공통질문7 ⑨상호토론 (주도권 토론) ⑩마무리 발언 ⑪ 클로징
제주2	5월 29일(목)	①오프닝 ②사회자 공통질문1 ③사회자 공통질문2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④(시청자) 공통질문3 ⑤사회자 공통질문4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⑥(시청자) 공통질문5 ⑦사회자 공통질문6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⑧사회자 공통질문7 ⑨상호토론 (주도권 토론) ⑩마무리 발언 ⑪ 클로징
세종	5월 29일 (목)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상호토론1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⑤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⑥사회자 공통질문2 ⑦사회자 공통질문3 ⑧상호토론3 (주도권 토론) ⑨마무리 발언 ⑩클로징

<표 5> 광역자치단체장 토론유형별 이용 빈도

질문유형	토론유형	사례수 (%)	
공통질문	A1	67(57.3%)	57(48.7%)
	A2		10(8.6%)
개별질문	B1	9(7.7%)	4(3.4%)
	B2		3(2.6%)
	B3		2(1.7%)
	B4		0(0%)
상호토론	C1	41(35.0%)	10(8.6%)
	C2		3(2.6%)
	C3		25(21.4%)
	C4		1(0.9%)
	C5		2(1.7%)
계		117(100%)	

2. 교육감 TV토론 형식

7개 교육감 선거방송토론에서는 8개 유형의 토론유형이 총 99회 사용되었다. 사회자 질문에 의한 토론방식은 총 53회(53.5%) 사용되었는데, 사회자 공통질문에 의한 토론방식에서 A1유형(사회자 공통질문-후보자 답변) 47회(47.5%), A2유형(사회자 공통질문-후보자 답변-사회자 보충질문-후보자 답변) 6회(6.1%) 사용되었다.

사회자에 의한 개별질문 토론방식은 총 6회(6.1%) 사용되었는데, 이 중 B1유형(사회자 개별질문-후보자 답변) 5회(5.1%), B3유형(사회자 개별질문-후보자 답변-타 후보자(전체) 반론-후보자 재반론) 1회(1.0%) 사용되었다.

후보자 질문에 의한 토론방식은 총 40회(40.4%) 사용되었는데, 이 중 C1유형(1:1 후보자 질문-후보자 답변) 15회(15.15%), C2유형(1:1 후보자 질문-후보자 답변-타 후보 반론-후보자 재반론) 3회(3.0%), C3유형(모든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타 후보 답변) 20회(20.2%), C5유형(후보자간 자유토론) 2회(2.0%) 사용되었다.

질문자가 누구였던 질문-답변 방식은 A1, A2, B1, C1 유형으로 약 73.73%에 이른다. 이에 반해 후보자간에 반론-재반론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토론방식은 B3, C2, C3, C4, C5 유형으로 약 26.26%에 지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장 토론에 비해 교

육감 토론이 사회자-후보 간 혹은 후보-후보 간 질문-답변 방식을 더욱 많이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표 6> 교육감선거 후보자들의 TV토론 형식

지역	개최일자	토론형식
서울	5월 23일 (금)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후 후보자 개별질문과 반박) ④사회자 공통질문2 (후 후보자 개별질문과 반박) ⑤상호토론1 (자유토론) ⑥상호토론2 (자유토론) ⑦마무리 발언 ⑧클로징
부산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상호토론1 (주도권 토론) ⑤사회자 공통질문2 ⑥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⑦사회자 공통질문3 ⑧사회자 공통질문4 ⑨마무리 발언 ⑩클로징
대구	5월 23일 (금)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상호토론1 (공약발표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④상호토론2 ⑤사회자 공통질문1 ⑥상호토론3 (주도권 토론) ⑦사회자 공통질문2 ⑧상호토론4 (주도권 토론) ⑨사회자 공통질문3 ⑩마무리 발언 ⑪클로징
인천	5월 23일 (금)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 ④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⑤상호토론1 (공약발표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⑥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⑦마무리 발언 ⑧클로징
대전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상호토론 (주도권 토론) ⑤사회자 공통질문2 ⑥사회자 공통질문3 ⑦마무리 발언 ⑧클로징
광주	5월 29일 (목)	①오프닝 ②사회자 공통질문1 ③상호토론1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④상호토론2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⑤사회자 공통질문2 ⑥상호토론3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⑦상호토론 (주도권 토론) ⑧마무리 발언 ⑨클로징
울산	5월 29일 (목)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 ④사회자 개별질문 ⑤상호토론1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⑥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⑦마무리 발언 ⑧클로징
경기	5월 26일 (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공통질문2 ⑤상호토론1(후보자 주도권 질문) ⑥상호토론2(후보자 주도권 질문) ⑦사회자 공통질문3 ⑧상호토론3 ⑨사회자 공통질문3 ⑩상호토론4(후보자 주도권 질문) ⑪마무리 발언 ⑫클로징

강원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상호토론1 (주도권 토론) ⑤사회자 개별질문 ⑥사회자 공통질문2 ⑦사회자 공통질문3 ⑧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⑨상호토론3 (주도권 토론) ⑩마무리 발언 ⑪클로징
충북	5월 24일 (토)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 ④사회자 개별질문 ⑤상호토론1 (공약발표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⑥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⑦마무리 발언 ⑧클로징
충남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공통질문2 ⑤사회자 공통질문3 ⑥상호토론 (주도권 토론) ⑦사회자 공통질문4 ⑧사회자 공통질문5 ⑨마무리 발언 ⑩클로징
전북	5월 28일 (수)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개별질문1 ④사회자 공통질문1 ⑤상호토론1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⑥(시청자) 개별질문2 ⑦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⑧사회자 공통질문2 ⑨마무리 발언 ⑩클로징
전남	5월 25일 (일)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공통질문2 ⑤사회자 공통질문3 ⑥상호토론1 (공약발표 후 개별질문) ⑦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⑧마무리 발언 ⑨클로징
경북	5월 29일 (목)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공통질문2 ⑤상호토론1 (주도권 토론) ⑥사회자 공통질문3 ⑦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⑧사회자 공통질문4 ⑨상호토론3 (공약발표 후 개별질문) ⑩사회자 공통질문5 ⑪사회자 공통질문6 ⑫마무리 발언 ⑬클로징
경남	5월 28일 (수)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상호토론1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④사회자 공통질문1 ⑤사회자 공통질문2 ⑥상호토론2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⑦사회자 개별질문 ⑧마무리 발언 ⑨클로징
제주	5월 26일 (일)	①오프닝 ②공통질문1 (공약발표 후 반론) ③사회자 공통질문2 ④공통질문3 (공약발표 후 반론) ⑤공통질문4 (공약발표 후 반론) ⑥사회자 공통질문5 ⑦공통질문6 (공약발표 후 반론) ⑧상호토론 (주도권 토론) ⑨마무리 발언 ⑩클로징
세종	5월 26일 (일)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공통질문2 ⑤상호토론1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⑥상호토론2 (주도권 토론) ⑦사회자 공통질문3 ⑧상호토론3 (주도권 토론) ⑨마무리 발언 ⑩클로징

<표 7> 교육감 토론유형별 이용 빈도

질문유형	토론유형	사례수 (%)	
공통질문	A1	53(53.5%)	47(47.5%)
	A2		6(6.1%)
개별질문	B1	6(6.1%)	5(5.1%)
	B2		0(0%)
	B3		1(1.0%)
	B4		0(0%)
상호토론	C1	40(40.4%)	15(15.2%)
	C2		3(3.0%)
	C3		20(20.2%)
	C4		0(0%)
	C5		2(2.0%)
계		99(100%)	

3. 기초자치단체장 TV토론 형식

15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방송토론에서는 8개 유형의 토론유형이 총107회 사용되었다. 사회자 질문에 의한 토론방식은 총 58회(54.21%) 사용되었는데, 사회자 공통질문에 의한 토론방식에서 A1유형(사회자 공통질문-후보자 답변) 52회(48.6%), A2유형(사회자 공통질문-후보자 답변-사회자 보충질문-후보자 답변) 6회(5.61%) 사용되었다.

사회자에 의한 개별질문 토론방식은 총 7회(6.54%) 사용되었는데, 이 중 B1유형(사회자 개별질문-후보자 답변) 3회(2.8%), B2유형(사회자 개별질문-후보자 답변-타 후보자(1인) 반론- 후보자 재반론) 4회(3.74%) 사용되었다.

후보자 질문에 의한 토론방식은 총 42회(39.25%) 사용되었는데, 이 중 C1유형(1:1 후보자 질문-후보자 답변) 17회(15.89%), C2유형(1:1 후보자 질문-후보자 답변- 타 후보 반론- 후보자 재반론) 12회(11.21%), C3유형(모든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타 후보 답변) 11회(10.28%), C5유형(후보자간 자유토론) 2회(1.87%) 사용되었다.

질문자가 누구였던 질문-답변 방식은 A1, A2, B1, C1 유형으로 약 72.9%에 이른다. 이에 반해 후보자간에 반론-재반론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토론방식은 B2, C2, C3, C5 유형으로 약 27.1%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장의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토론회가 후보자간의 상호토론 보다는 사회자-후보 간 혹은 후보-후보 간 질문-답변 방식에 치중했음을 보여준다.

<표 8> 기초자치단체장 TV토론형식

지역	개최일자	토론형식
서울 송파구청장	5월 28일 (수)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상호토론1 (주도권 토론) ⑤상호토론2(자유토론) ⑥사회자 공통질문2 ⑦상호토론3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⑧상호토론4 (자유토론) ⑨마무리 발언 ⑩클로징
부산 해운대구청장	5월 22일 (목)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상호토론1 (자유토론) ⑤사회자 공통질문2 ⑥상호토론2 (자유토론) ⑦사회자 공통질문3 ⑧사회자 공통질문4 ⑨사회자 공통질문5 ⑩마무리 발언 ⑪클로징
대구 달서구청장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상호토론1 (공약발표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④상호토론2 ⑤사회자 공통질문1 ⑥상호토론3 (주도권 토론) ⑦사회자 공통질문2 ⑧상호토론4 (주도권 토론) ⑨사회자 공통질문3 ⑩사회자 공통질문4 ⑪사회자 공통질문5 ⑫사회자 공통질문6 ⑬사회자 공통질문7 ⑭사회자 공통질문8 ⑮사회자 공통질문9 ⑯사회자 공통질문10 ⑰마무리 발언 ⑱클로징
인천 부평구청장	5월 28일 (수)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상호토론1 ⑤사회자 공통질문2 ⑥상호토론2 ⑦사회자 공통질문3 ⑧상호토론3 ⑨사회자 공통질문4 ⑩상호토론4 ⑪사회자 공통질문5 ⑫상호토론5 ⑬상호토론6 (공약발표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⑭마무리 발언 ⑮클로징
대전 서구청장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공통질문2 ⑤사회자 개별질문1 (후 후보자 보충질문) ⑥사회자 개별질문2 (후 후보자 보충질문) ⑦사회자 개별질문3 (후 후보자 보충질문) ⑧상호토론 (주도권 토론) ⑨마무리 발언 ⑩클로징
광주 북구청장	5월 24일 (토)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공통질문2 ⑤상호토론1 (공약발표 후 개별질문) ⑥상

		호토톨론2 (공약발표 후 개별질문) ⑦상호토톨론3 (공약발표 후 개별질문) ⑧상호토톨론4 (주도권 토론) ⑨사회자 개별질문 ⑩마무리 발언 ⑪클로징
울산 남구청장	5월 28일 (수)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⑤사회자 공통질문2 ⑥상호토톨론1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⑦상호토톨론2 (공약발표 후 개별질문) ⑧상호토톨론3 ⑨마무리 발언 ⑩클로징
경기 남양주시장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공통질문2 ⑤사회자 공통질문3 ⑥사회자 공통질문4 ⑦사회자 공통질문5 ⑧마무리 발언 ⑨클로징
강원 원주시장	5월 26일 (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상호토톨론1 (공약발표 후 개별질문) ④사회자 공통질문1 ⑤사회자 개별질문 ⑥상호토톨론2 (보충질문) ⑦상호토톨론3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⑧사회자 공통질문2 ⑨상호토톨론4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⑩사회자 공통질문3 ⑪마무리 발언 ⑫클로징
충북 충주시장	5월 28일 (수)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공통질문2 ⑤사회자 개별질문 ⑥사회자 공통질문3 ⑦상호토톨론1 (보충질문) ⑧사회자 공통질문4 ⑨상호토톨론2 (주도권 토론) ⑩마무리 발언 ⑪클로징
충남 아산시장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상호토톨론1 (보충질문) ⑤사회자 공통질문2 ⑥상호토톨론2 (보충질문) ⑦상호토톨론3 (공약발표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⑧상호토톨론4 ⑨상호토톨론5 (후보자 주도권 질문) ⑩사회자 공통질문3 ⑪사회자 공통질문4 ⑫마무리 발언 ⑬클로징
전북 익산시장	5월 29일 (목)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상호토톨론1 (공약발표 후 개별질문) ⑤사회자 공통질문2 ⑥사회자 개별질문 ⑦상호토톨론2 (주도권 토론) ⑧사회자 공통질문3 ⑨마무리 발언 ⑩클로징
전남 여수시장	5월 28일 (수)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사회자 공통질문2 ⑤사회자 공통질문3 ⑥상호토톨론 (주도권 토론) ⑦마무리 발언 ⑧클로징
경북 구미시장	5월 26일 (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상호토톨론1 (공약발표 후 후보자 개별질문) ④상호토톨론2 ⑤사회자 공통질문1 ⑥사회자 공통질문2 ⑦상호토톨론3 (주도권 토론) ⑧사회자 공통질문3 ⑨사회자 공통질문4 ⑩사회자 공통질문5 ⑪마무리 발언 ⑫클로징
경남 김해시장	5월 27일 (화)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 공통질문1 ④상호토톨론1 (주도권 토론) ⑤사회자 공통질문2 ⑥상호토톨론2 (주도권 토론) ⑦마무리 발언 ⑧클로징

<표 9> 기초자치단체장 토론유형별 이용 빈도

질문유형	토론유형	사례수 (%)	
공통질문	A1	58(54.2%)	52(48.6%)
	A2		6(5.6%)
개별질문	B1	7(6.5%)	3(2.8%)
	B2		4(3.7%)
	B3		0(0)
	B4		0(0)
상호토론	C1	42(39.3%)	17(15.9%)
	C2		12(11.2%)
	C3		11(10.3%)
	C4		0(0%)
	C5		2(1.9%)
계		107(100%)	

제3절 TV토론의 진행: 사회자

광역자치단체장 TV토론회의 사회는 아나운서와 앵커, 기자 등의 언론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7곳에서는 대학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이들 사회자들은 사전에 정해진 토론의제를 차례대로 제시하고, 일부 직접 질문을 묻고 보충질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질의응답의 시간을 규제하고, 후보자의 질의내용이 주제를 벗어나면 이를 제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교육감선거 TV토론에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대학 교수 등 지역 교수들의 출연이 8곳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TV토론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아나운서 및 기자, 앵커 등이 사회를 맡은 곳도 9명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TV토론에서도 6명의 진행자가 대학교수였으며 9명의 사회자는 언론인이었다. 이들 사회자들은 토론진행하면서 토론참여자들끼리 상관없는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크게 제지에 나서지 않았다.

<표 10> TV토론 사회자 및 직업

지역	광역시도 도지사 TV토론 사회자	광역시도 교육감 TV토론 사회자	기초자치단체장 TV토론 사회자
서울	정관용(대학교수,한림대)	홍기섭(언론인,KBS보도국 취재주간)	강치원(대학교수,강원대)
부산	이경찬(대학교수,영산대)	김영일(대학교수,신라대)	김동현 (아나운서,MBC)
대구	장원용(언론인,MBC기자)	장원용(언론인,MBC기자)	이태우(언론인,MBC기자)
인천	홍기섭(언론인,KBS보도국 취재주간)	김상운(언론인,MBC논설실장)	전영우(대학교수,인천대)
대전	유진환(언론인,KBS기자)	송인암(대학교수,대전대)	유진환(언론인,KBS기자)
광주	조현성(언론인,MBC기자)	임정섭 (아나운서,KBS)	조현성(언론인,MBC기자)
울산	조형제(대학교수,울산대)	김주홍(대학교수,울산대)	김주홍(대학교수,울산대)
경기	홍기섭(언론인,KBS보도국 취재주간)	김상운(언론인,MBC기자)	정용석 (분당 FM 대표)
강원	한진만(대학교수,강원대)	김원동(대학교수,강원대)	양준모(대학교수,연세대)
충북	이혜수 (아나운서,KBS)	이영락 (아나운서,MBC)	김영중(언론인,KBS기자)
충남	라미경(대학교수,순천향대)	이영애(대학교수,단국대)	라미경(대학교수,순천향대)
전북	송인호(언론인,MBC기자)	안문석(대학교수,전북대)	송인호(언론인,MBC기자)
전남	임정섭 (아나운서, KBS)	김형주(대학교수,광주대)	김주희(언론인,MBC기자)
경북	정인수(언론인,KBS보도국 편집부장)	김상배(언론인,KBS보도국 취재부장)	이태우(언론인,MBC기자)
경남	이호영(대학교수,창원대)	이경찬(대학교수,영산대)	이호영(대학교수,창원대)
제주1	송원일(언론인,MBC보도국장)	김영훈(언론인,KBS보도국장)	
제주2	김영훈(언론인, KBS 기자)		
세종	라미경(대학교수,순천향대)	유진환(언론인,KBS기자)	

제4절 토론 의제 분석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 6.4 지방선거에 가져온 영향은 가히 메가톤 급이었다. 특히 TV토론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 수사방향 또 나아가 한국사회의 안전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뤘다. 6.4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대변되는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이슈로 자주 언급되었다는 점은 역대 지방선거와는 다른 점이었다. 하지만 TV토론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환기시킨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지역현안 및 경제현안 등 다양한 이슈들이 언급되었다.

1. 광역자치단체장 TV토론 의제

이번 6.4 지방선거의 17개 광역시장 및 시도지사 후보들의 TV토론(제주도지사 2회 포함)에서 언급된 이슈는 모두 454가지로, 각 토론회 평균 25.2가지 이슈를 다뤘다. 가장 적은 이슈를 다룬 토론회는 제주시장 토론회 2차와 세종시장 토론회로 각각 14개와 16개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반면, 울산시장 토론회에서는 37가지, 충청북도 도지사 및 서울시장에서는 각각 33가지, 32가지 이슈에 대한 언급이 이뤄졌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는 것은 각 후보자들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언급한 이슈는 모두 32건이었으며 이중 정치와 경제문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안전문제가 5건, 복지 및 보건 3건, 교육문제가 1건 다뤄졌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의 TV토론의 경우, 전체 26건의 토론 이슈 중에서 경제문제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정당) 5건, 안전이슈 4건, 환경 및 교통 2건 언급되었다.

<표 11> 6.4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TV토론 주제

구분	정치, 정당	경제, 산업	교육	환경, 교통	통일, 안보	안전, 치안	보건, 복지	과학, 문화	기타	합계
서울	10	10	1	0	0	5	3	0	3	32
부산	5	4	0	5	0	4	1	1	10	30
대구	5	6	0	2	1	3	1	1	6	25
인천	6	4	0	1	0	3	3	1	13	31
광주	13	7	0	2	0	2	0	0	8	32
대전	8	10	0	2	0	1	1	2	4	28
울산	12	4	0	4	0	6	2	0	9	37
세종	4	5	0	2	0	0	0	0	5	16
경기	5	7	0	2	0	4	1	0	3	22
강원	4	6	0	1	2	4	2	0	5	24
충북	4	7	0	7	0	5	1	3	6	33
충남	5	6	0	1	0	2	3	0	2	19
전북	7	8	0	3	0	4	2	1	3	28
전남	2	6	2	0	0	3	5	2	10	30
경북	3	4	0	0	0	4	4	1	3	19
경남	4	9	0	0	0	2	1	0	2	18
제주1	7	7	0	4	0	0	0	0	0	18
제주2	4	4	0	2	0	0	1	1	0	12
총합	108	114	3	38	3	52	31	13	92	454

전체적으로 지역개발 및 부동산 문제 등 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총 114회로 가장 많이 다뤄졌으며 이어 정치 및 정당문제가 총 108회 언급되어 2위의 쟁점이 되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이후 부쩍 늘어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안전 및 치안 이슈가 52회, 복지 및 보건 문제 31회, 환경 및 교통 문제가 38회에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통일 및 안보 이슈는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강원도에서만 2회 언급되는 등 총 3회에 대해서만 언급되었다. 또 기타 이슈로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의 현대중공업 주식 소유 등 재산에 대한 언급, 전라남도

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등을 문제 삼는 등 후보개인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 등이 주종을 이뤘다.

2. 교육감 TV토론 의제

교육감 후보자들의 TV토론에서는 모두 475건의 이슈가 언급되어 각 토론회당 평균 27.9개의 이슈가 다뤄진 셈이다.

<표 12> 6.4. 지방선거 광역 시도 교육감 개별 TV토론 의제

구분	정치, 정당	경제, 산업	교육	환경, 교통	통일, 안보	안전, 치안	복지, 보건	과학, 문화	기타	합계
서울	4	0	7	0	0	0	5	0	4	20
부산	3	0	15	0	2	2	1	0	3	26
대구	5	0	4	0	4	4	3	0	11	31
인천	5	0	20	0	1	1	0	0	17	44
광주	1	0	10	0	5	5	0	0	15	36
대전	1	0	7	0	3	3	2	0	8	24
울산	3	0	16	0	3	3	1	0	6	32
세종	4	0	18	0	1	1	0	0	12	36
경기	4	0	13	0	1	1	2	0	9	30
강원	4	0	6	0	2	2	4	0	19	37
충북	4	0	8	0	3	3	1	0	11	30
충남	6	0	2	0	0	0	4	0	5	17
전북	5	0	9	0	5	5	2	0	5	31
전남	1	0	7	0	3	3	0	0	10	24
경북	0	0	8	0	4	4	1	0	2	19
경남	4	0	3	0	1	1	1	0	9	19
제주	2	0	7	0	1	1	0	0	8	19
총합	56	0	160	0	39	39	27	0	154	475

전체 475건의 이슈 언급 중에서 교육 관련 내용이 160건(33.7%)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나 다른 영역의 주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토론이 이뤄졌다. 비록 교육감선거 출마자들은 특정정당과 연계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치이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면서 모두 56개의 쟁점사항이 논의되었다. 안전 및 치안문제 등을 언급한 경우는 39건이었으며 보건 및 복지는 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과 광주, 세종, 강원도 등 지에서는 35건 이상의 이슈를 다뤘으며 반면 경북, 경남, 제주, 충남 등에서는 20건 미만의 이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3. 기초자치단체장 TV토론 의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전체 시군구에서는 모두 312개의 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는 각 시군구별 평균 20.8개의 주제가 논의된 것이다. 경기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토론주제가 5개에 불과했지만 전남 여수시의 경우에는 토론주제가 무려 43개에 달하는 등 지역적 편차가 심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역시 지역발전과 관련된 것들로 특히 경제와 산업관련 이슈들이 총 7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치 및 정당 관련된 내용이 62건, 환경 및 교통문제가 48건, 세월호 이후 관심이 늘어난 안전문제도 35건에 달했다. 또한 복지 관련 이슈도 19건이 거론되었다. 기타이슈로는 다른 후보가 ‘구원파’인지를 묻는 경우 (대전서구), 선거에서 탈락할 경우 재출마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경우 (울산 남구) 등이 있었다.

<표 13> 기초자치단체장 TV토론 주제수

구분	정치, 정당	경제, 산업	교육	환경, 교통	통일, 안보	안전, 치안	복지, 보건	과학, 문화	기타	합계
서울 송파구	3	3	0	6	0	3	3	1	1	20
부산 해운대구	7	5	0	1	0	8	1	1	1	24
대구 달서구	6	3	0	1	0	5	1	1	1	18

인천 부평구	6	1	0	8	0	0	3	1	0	19
광주 북구	6	3	1	6	0	3	1	2	0	22
대전 서구	4	8	0	2	0	0	2	0	3	19
울산 남구	2	4	0	3	1	2	1	0	1	14
경기 남양주	1	1	0	1	0	0	1	1	0	5
강원 원주	3	3	0	3	0	0	1	3	3	16
충북 충주	4	6	0	2	0	2	0	2	9	25
충남 아산	5	7	3	3	0	4	1	0	3	26
전북 익산	6	3	0	2	0	2	0	0	3	16
전남 여수	8	16	3	6	0	2	1	0	7	43
경남 구미	0	12	3	0	0	3	0	0	9	27
경남 김해	1	3	0	4	0	1	3	1	5	18
총합	62	78	10	48	1	35	19	13	46	312

제5절 토론의 질적 평가

토론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질문의 적합성, 주제를 벗어난 질문,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의견만 밝힌 경우 등을 살펴보았으며 자료제시와 함께 질문했는지, 아니면 단지 주장만 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1. 질문의 적합성 평가

1)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TV토론회에서는 총 454개의 질문이 제시되었는데 이중 당초 주

어진 취지 및 주제에 맞는 질문은 400개이었으며 35개는 주제에서 어긋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할당된 질의시간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10번이나 있었다. 질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하다 말은 질문도 9개나 되었다.

<표 14> 6.4.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질문의 적합성 평가

구분	질문의 적합성					자료제시		
	적합	주제 벗어남	마무리 못함	의견만	합계	제시	없음	합계
서울	22	9	1	0	32	22	10	32
부산	30	0	0	0	30	23	7	30
인천	24	0	0	0	24	19	5	24
대구	29	1	0	1	31	24	7	31
대전	25	7	0	0	32	22	10	32
광주	26	2	0	0	28	24	4	28
울산	35	0	2	0	37	34	3	37
경기	21	3	0	0	24	19	5	24
강원	20	1	0	3	24	23	1	24
충북	33	0	0	0	33	24	9	33
충남	15	1	2	1	19	13	6	19
전북	25	3	0	0	28	22	6	28
전남	24	1	5	0	30	28	2	30
경북	16	1	0	2	19	15	4	19
경남	14	2	0	2	18	17	1	18
제주1	14	4	0	0	18	17	1	18
제주2	12	0	0	0	12	12	0	12
세종	15	0	0	1	16	16	0	16
총합	400	35	10	10	455	374	81	455

질문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의 하나로서 자료제시 여부를 살펴보았더니, 전체의 82.4%에 해당되는 374개의 질문이 근거자료 등을 제시했다. 반면 자료제시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질문을 던진 경우는 80개였다.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마다 편차가 컸다. 가령, 부산광역시와 울산시, 인천시, 세종시,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이 없었던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주제와 상관없는 질문이 9개, 대전시에서는 7개에 달했다. 또한 자료제시 등을 통해 질문의 구체성은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시, 세종시 등에서 돋보였다. 구체적인 자료 제시 없이 질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은 서울시와 대전시, 충청북도지사의 TV토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감

교육감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TV토론과 비교해서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6.4.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질문의 적합성 평가

구분	질문의 적합성					자료제시		
	적합	주제 벗어남	마무리 못함	의견만	합계	제시	없음	합계
서울	18	1	0	1	20	16	4	20
부산	25	0	0	0	25	17	8	25
인천	27	0	0	0	27	19	8	27
대구	40	3	0	0	43	28	15	43
대전	26	5	0	0	31	24	7	31
광주	20	0	1	0	21	20	1	21
울산	29	0	0	0	29	27	2	29
경기	25	3	1	0	29	22	7	29
강원	26	6	0	3	35	35	0	35
충북	27	0	0	0	27	19	8	27
충남	15	0	2	0	17	16	1	17
전북	26	0	0	0	26	18	8	26
전남	19	0	1	1	21	13	8	21
경북	14	0	0	1	15	15	0	15
경남	17	1	0	0	18	16	2	18
제주1	18	0	0	0	18	11	7	18
세종	16	0	4	0	20	17	3	20
합계	388	19	9	6	422	333	89	422

전체질문 422개중에 91.9%에 해당되는 388개의 질문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강원도와 대전시교육감 선거 TV토론에 참여자들은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을 비교적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과 인천, 광주, 울산, 제주, 세종, 충남과 충북, 경북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주제에 적합한 질문을 하였다. 또한 자료제시 측면에서는 강원도와 경북 등이 충실한 자료제시가 돋보인 반면에 대구와 전라북도, 제주 등에서는 자료제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3)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임한 후보자들의 TV토론은 다른 광역도지사 및 광역시도 교육감들의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제에서 벗어난 것은 적었다.

<표 16>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TV토론자들의 질문의 적합성 평가

구분	질문의 적합성					자료제시		
	적합	주제 벗어남	마무리 못함	의견만	합계	제시	없음	합계
서울 송파구	16	0	4	0	20	17	3	20
부산 해운대구	22	0	2	0	24	19	5	24
인천 부평구	18	0	0	0	18	17	1	18
대구 달서구	18	0	1	0	19	11	8	19
대전 서구	22	0	0	0	22	17	5	22
광주 북구	18	0	0	1	19	15	4	19
울산 남구	14	0	0	0	14	14	0	14
경기 남양주시	5	0	0	0	5	5	0	5
강원 원주시	13	0	2	1	16	14	2	16
충북 충주시	20	4	0	1	25	19	6	25
충남 아산시	23	0	3	0	26	21	5	26
전북 익산시	13	1	2	0	16	15	1	16
전남 여수시	35	0	6	2	43	37	6	43
경북 구미시	26	0	0	1	27	20	7	27
경남 김해시	16	2	0	0	18	15	3	18
합계	279	7	20	6	312	256	56	312

그러나 질문을 마무리 하지 못한 채 끝내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눈에 띄었으며 상대방에 질문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었다. 자료제시 측면에서도 전체 질문 312개중에서 17.9%에 해당되는 56개의 질문이 자료제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나 광역자치단체장 80개 (17.6%), 광역시도 교육감 90개 (21.3%)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응답의 적합성 평가

1) 광역자치단체장

다음의 표에서 보여주듯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의 응답수준은 대부분 단순응답에 그쳤다. 전체응답 646개의 69.1%에 해당되는 446개의 답변이 단순응답이었다. 이는 토론이 서로 주고받는 토론이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묻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에 대해 심각한 고려 없이 짧게 대답했다는 의미다. 특히, 대전시장을 비롯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에서는 반론응답이 거의 없었다. 응답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경우는 없었으나 질문에 대한 회피성 응답으로 일관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표 17> 6.4.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의 응답유형

구분	단순응답	응답질문	반론응답	회피응답	합계
서울시장	18	0	15	4	37
부산시장	22	3	12	6	43
대구시장	28	0	11	1	40
인천시장	14	1	12	4	31
광주시장	29	2	18	2	51
대전시장	29	0	4	5	38
울산시장	25	2	14	1	42
세종시장	9	1	7	2	19
경기도지사	20	1	11	1	33

강원도지사	22	2	3	4	31
충북도지사	26	0	8	1	35
충남도지사	22	0	4	0	26
전북도지사	27	0	7	4	38
전남도지사	26	1	5	3	35
경북도지사	26	1	3	3	33
경남도지사	19	0	0	0	19
제주도지사	38	0	7	1	46
제주도지사	46	0	2	1	49
합 계	446	14	143	43	646

2) 교육감

교육감의 선거응답에서도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단순응답이었다. 전체 630개의 응답 중에서 단순응답은 474개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즉 4개의 답변 중에 3개가 단순응답이었으며 반론응답을 한 경우는 18.1%에 해당되는 114개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을 회피하는 발언 역시 4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6.4.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들의 응답유형

구분	단순응답	응답질문	반론응답	회피응답	합계
서울교육감	42	1	9	3	55
부산교육감	30	0	7	0	37
대구교육감	18	0	11	4	33
인천교육감	39	0	3	3	45
광주교육감	23	0	18	3	44
대전교육감	32	0	4	0	36
울산교육감	23	0	8	1	32
세종교육감	29	0	7	5	41
경기교육감	46	0	2	0	48
강원교육감	17	0	13	5	35
충북교육감	25	0	6	2	33
충남교육감	26	0	3	3	32

전북교육감	27	0	2	3	32
전남교육감	18	0	5	4	27
경북교육감	25	0	1	1	27
경남교육감	11	0	7	4	22
제주교육감	43	0	5	4	52
합계	474	1	111	44	630

3)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역시 단순응답이 전체 응답 426개중의 75.8%인 323개를 차지했다. 또한 반론응답과 회피응답은 각각 15.9%, 7.5%를 차지했다.

<표 19> 기초자치단체장 TV토론의 응답수준 분석

구분	단순응답	응답질문	반론응답	회피응답	합계
송과구청장	27	0	7	0	34
해운대구청장	27	0	4	2	33
달서구청장	21	1	4	0	26
부평구청장	21	0	2	1	24
북구청장	23	0	5	0	28
서구청장	14	0	4	2	20
남구청장	13	0	3	0	16
남양주시장	29	1	0	0	30
원주시장	11	0	8	0	19
충주시장	25	0	3	4	32
아산시장	22	0	3	5	30
익산시장	11	0	3	5	19
여수시장	39	1	9	6	55
구미시장	30	0	7	5	42
김해시장	10	0	7	5	22
합계	323	3	68	32	426

선거토론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전반적으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응답을 했으나 아무런 자료제시나 수치 없이 즉흥적인 대답으로 일관되는 경우도 상당했다. 전체 답변 647건 중에 403건 (62.3%)이 근거자료제시가 없는 답변이었다.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들이 답변을 하면서 근거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18번이었으나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답변을 한 경우도 19회에 달했다. 응답의 심층성 측면에서는 사실 확인이나 설명이 37회의 답변 중에 20회에 달했고, 평가 및 견해 제시는 11건, 해결방안 및 정책적 대안은 6건에 불과했다.

3. 답변의 심층성

1) 광역자치단체장

근거자료제시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부산시장 선거 출마자들과 광주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TV토론이다. 부산시장의 경우 전체 43건의 답변중 28건 (65.1%)가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며 광주시장의 경우에는 51건중의 답변중 51.0%에 해당되는 26건에 대해 근거제시가 이뤄졌다. 반면에 근거자료제시가 미비한 TV토론회는 제주도지사 TV토론회 1차 및 2차, 경남도지사, 전남도지사, 인천시장 등으로 꼽혔다. 특히 1차 제주도지사 TV토론회에서는 전체 응답 46건중 40건 (86.9%)이 근거자료 제시 없는 답변이었다.

응답의 심층성 부분에서 호평을 받은 TV토론회는 경기도지사과 강원도지사, 경북도지사 선거 TV토론회로 이들 토론회에서는 응답의 30%이상이 해결방안 및 정책적 대안제시 등이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답변이 길수록 해결방안 혹은 정책제시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해결방안/정책제시의 답변이 많다고 해서 높은 수준의 답변을 주로 했다고는 단정짓기는 힘들다.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의 경우, 해결방안 및 정책제시의 답변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가령 제주도지사 선거의 1차토론회에서는 전체 답변 46회중에 평가 및 견해제시가 25회 (56.5%)였으며 해결방안 및 정책제시의

답변이 11회 (23.9%)에 달해 총 36회 (78.3%)가 심층적인 답변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2차 토론회에서도 전체 답변 49회중 평가 및 견해제시가 23건 (46.9%), 해결방안 제시 16건 (32.7%)등이었다. 하지만 답변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1차토론회 6회 (13.0%), 2차 토론회 9회 (18.4%)에 불과해서 답변들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사실 확인과 설명 위주의 토론에서는 상호후보간의 검증토론이 많았다.

<표 20>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응답의 심층성

구분	자료제시여부			응답의 심층성				
	제시	제시 안함	합계	사실 확인	설명	평가/견 해제시	해결안, 정책제시	합계
서울시장	18	19	37	17	3	11	6	37
부산시장	15	28	43	15	7	15	6	43
대구시장	22	18	40	4	8	19	9	40
인천시장	24	8	32	7	6	16	3	32
광주시장	25	26	51	13	7	23	8	51
대전시장	18	20	38	12	9	11	6	38
울산시장	26	16	42	15	12	11	4	42
세종시장	12	7	19	4	5	4	6	19
경기도지사	21	12	33	5	2	15	11	33
강원도지사	18	13	31	9	5	5	12	31
충북도지사	22	13	35	12	6	10	7	35
충남도지사	18	8	26	0	7	16	3	26
전북도지사	22	16	38	7	11	12	8	38
전남도지사	25	10	35	10	6	10	9	35
경북도지사	21	12	33	8	1	13	11	33
경남도지사	16	3	19	1	6	10	2	19
제주도지사1	40	6	46	5	5	25	11	46
제주도지사2	40	9	49	5	5	23	16	49
계	403	244	647	149	111	249	138	647

2) 교육감

교육감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심층성을 살펴보면, 먼저 근거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전체 답변 631건중 256 (40.6%)건으로 근거자료 제시 없는 답변보다 상당히 적었다. 각 시도별 특징을 살펴보면, 근거자료 제시가 50%를 넘은 곳은 서울시(54.5%), 광주시 (56.8%), 울산시 (56.3%), 경기도 (50.0%), 경상북도 (66.7%) 등이었다. 반면 인천시, 세종시, 제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답변은 근거자료 제시율이 각각 24.2%, 25.4%, 26.9% 등으로 매우 낮았다.

<표 21> 교육감 후보응답의 심층성

구분	자료제시여부			응답의 심층성				
	제시	제시 안함	합계	사실 확인	설명	평가/견해제시	해결방안, 정책제시	합계
서울교육감	30	25	55	10	7	15	23	55
부산교육감	17	20	37	12	2	4	19	37
대구교육감	8	25	33	17	5	0	11	33
인천교육감	13	32	45	12	13	4	16	45
광주교육감	25	19	44	19	9	7	9	44
대전교육감	12	24	36	7	8	2	19	36
울산교육감	18	14	32	10	13	1	8	32
세종교육감	10	31	41	11	18	0	12	41
경기교육감	24	24	48	4	9	13	22	48
강원교육감	13	22	35	15	9	2	9	35
충북교육감	12	21	33	6	14	4	9	33
충남교육감	12	20	32	8	4	2	18	32
전북교육감	11	21	32	6	9	2	15	32
전남교육감	9	18	27	6	9	5	7	27
경북교육감	18	9	27	1	6	5	15	27
경남교육감	10	12	22	5	9	3	5	22
제주교육감	14	38	52	11	7	11	23	52
계	256	375	631	160	151	80	240	631

답변의 심층성은 전반적으로 해결방안 및 정책제시 (38.0%)가 가장 많았으며 사실확인 (25.2%)과 설명(2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평가 및 견해 제시는 12.7%에 불과했다. 지역적으로는 단순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대구 교육감 (51.5%)와 광주 교육감 (43.2%), 강원교육감 (42.9%) 선거 토론이었다. 반면 충북 교육감 (43.9%), 전남교육감 (40.9%)의 토론회는 설명위주의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 및 견해제시가 많은 토론회는 서울 교육감 (27.3%)과 경기교육감 (27.1%), 경남 교육감 (21.2%) 토론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안제시는 경북 교육감 (55.6%), 대전교육감 (52.7%), 부산 교육감 (51.4%), 경남교육감 (44.2%), 서울 교육감 (41.8%)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3)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경우에는 근거자료 제시한 경우가 제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6:4 정도로 많았다. 특히 대전 서구청장 및 익산시장 출마자들의 경우에는 답변에서 근거 수치 및 자료 등을 제시한 경우가 각각 75%와 73.7%에 달했으며 이어 광주 북구청장 출마자들은 71.4%의 근거자료 제시율을 보였다. 반면에 부산 해운대구청장 (42.4%), 충북 충주시장 (43.8%) 등의 TV토론에서는 후보자들이 비교적 낮은 근거자료 제시비율을 보였다.

응답의 심층성 측면에서는 사실확인이 18.6%, 설명 28.1%, 평가 및 견해제시 20.2%,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제시가 33.0%였다.

사실확인의 답변이 가장 많은 곳은 경상남도 김해시장의 후보자들의 TV토론회로 31.8%의 답변이 사실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어 전북 익산시장 (26.3%) 및 전남 여수시장 (25.5%) 선거출마자들의 경우에도 사실확인 답변이 높았다. 그러나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의 경우 사실 확인 답변은 아예 없었으며, 인천 부평구청장과 울산 남구청장, 광주 북구청장 출마자들의 사실확인 답변은 각 4%와 6%, 7% 등에 그쳤다. 또한 답변중 설명이 많은 곳으로는 충남아산시장 (43.3%)와 강원원주시장 (42.1%) 등이 꼽혔다. 평가 및 견해제시가 많은 곳으로는 서울 송파구 (47.1%)과 인

천 부평구 (41.7%) 등으로 나타났으며 해결방안 및 정책제시의 비율이 높은 곳은 부산 해운대구 (42.4%)와 경상북도 구미시장 (40.5%) 선거 토론회로 드러났다. 대전 서구청장과 인천 부평구청장 선거 TV토론회는 해결방안 및 정책제시 비율이 각각 20.8%, 20.0%로 가장 낮았다.

<표 22>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응답의 심층성

구분	자료제시여부			응답의 심층성				
	제시	제시 안함	합계	사실 확인	설명	평가/견해제시	해결방안, 정책제시	합계
서울 송파구	21	13	34	5	8	16	5	34
부산 해운대구	14	19	33	7	6	6	14	33
대구 달서구	14	12	26	3	9	6	8	26
인천 부평구	15	9	24	1	8	10	5	24
광주 북구	20	8	28	2	11	8	7	28
대전 서구	15	5	20	4	8	4	4	20
울산 남구	11	5	16	1	3	6	6	16
남양주시장	15	15	30	0	5	7	18	30
원주시장	13	6	19	3	8	2	6	19
충주시장	14	18	32	14	6	0	12	32
아산시장	20	10	30	4	13	1	12	30
익산시장	14	5	19	5	6	4	4	19
여주시장	36	19	55	14	12	11	18	55
구미시장	28	14	42	10	10	5	17	42
김해시장	15	7	22	7	8	1	6	22
합계	265	165	430	80	121	87	142	430

제 4 장 6.4 서울시장선거 TV토론에 대한 효과분석

이번 6.4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은 것은 바로 서울시장 후보들의 TV토론회였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행정을 담당할 시장을 뽑는다는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민운동의 대부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약 2조원의 재산을 가진 현대중공업 그룹의 오너 정몽준 후보와의 서로 대비되는 이력과 정책은 선거시작 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들 두 후보간의 TV토론은 5월 19일 관훈클럽 주최의 토론회로부터 6월 2일 jtbc의 토론회까지 모두 4차례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장 TV토론회를 1회 이상 시청한 서울시민 400명을 상대로 5월 29일부터 4일 동안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이다.

제1절 연구방법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간의 TV토론회는 지난 5월 19일 관훈클럽 초청 후보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2일 jtbc의 후보토론회까지 모두 4회의 TV토론회가 열렸다. 지방선거에 나선 공직후보자들의 TV토론은 서로들의 의견을 묻는 토론회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하나의 퍼포먼스에 가깝다. 상당수 국민들이 TV토론회를 보고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평가하고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TV토론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TV토론회를 1회이상 시청한 서울시민을 상대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 오전까지 진행된 온라인 서베이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 6월 2일 진행된 jtbc의 토론회 시청자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설문은 전문 리서치기관 PMI에 의뢰, 등록된 온라인패널 성인남녀 2,100명에게 설문참여의사를 묻는 이메일을 보내 이중 답변자 430명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400명의 응답자를 분석했다. 설문과정에서는 1) TV토론을 시청여부 2) 서울시민여부 등의 두 조건에 따른 필터링을 한 뒤에 남녀 동수로 진행했다.

<표 23> 6.4 서울시장선거에서 후보들의 TV토론 현황

날짜 및 시간	주최기관	참석자	사회자	토론 진행 형식
2014.05.19 (10:00-12:00)	관훈클럽	후보자: 정몽준(새누리) 박원순(새민련) 패널: 조영달(언론인) 이정민(언론인) 성한용(언론인) 채경옥(언론인)	이용식 (언론인)	공동기자회견형 + 후보자간 직접 토론형
2014.05.26 (23:15-24:45)	서울시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정몽준(새누리) 박원순(새민련) 정태홍(통진)	정관용 (교수, 시사평론가)	후보자간 직접 토론형
2014.05.28 (11:00-12:20)	한국방송 기자클럽	정몽준(새누리) 박원순(새민련)	김만흠 (사회기관단 체인)	후보자간 직접 토론형
2014.06.02 (21:20-23:00)	중앙일보, Jtbc	정몽준(새누리) 박원순(새민련)	손석희 (언론인)	후보자간 직접 토론형

온라인 설문참여자는 모두 400명으로 이중 20대는 전체의 28.5%인 114명이었으며 30대 90명(22.5%), 40대 99명 (24.8%), 50대 91명(22.8%)이었다. 또한 61세 이상은 모두 6명으로 전체의 1.5%에 그쳤다. 이는 온라인 패널들의 특성상 61세 이상의 노인들의 참여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의 4개구에 거주자는 모두 100명으로 25%를 차지하는

등 전체 25개구에 고르게 참여했다. 직업은 사무직이 1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정주부, 전문직, 경영직(5급 이상의 관료 및 부장이상의 기업체근무자) 등의 순서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전체의 66.8%였으며 초대졸 및 대학원졸업자들도 각각 47명과 43명에 달했다.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41.3%가 지지정당을 밝히기 꺼렸으며 지지정당을 밝힌 응답자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5.3%, 새누리당이 23.5%를 차지했다.

<표 24> 설문참여자의 인구특성

전체		사례수	%
성별			
	남자	200	50%
	여자	200	50%
연령별			
	21-30세	114	28.5%
	31-40세	90	22.5%
	41-50세	99	24.8%
	51-60세	91	22.8%
	61-70세	6	1.5%
거주지역 (구)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100	25%
	남서권 (동작, 관악,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금천)	102	25.5%
	북서권 (마포, 서대문, 은평)	39	9.8%
	북동권 (강북, 광진, 노원, 도봉, 중랑, 성동)	100	25.0%
	중심권(용산, 종로, 중구, 성북, 동대문)	59	14.8%
직업별			
	자영업	30	7.5%
	사무직	174	43.5%
	학생	30	7.5%
	가정주부	55	13.8%
	경영직 및 전문직	60	15%
	생산 및 숙련직	22	5.5%
	무직 및 기타	19	4.8%
	판매 및 영업	10	2.5%
학력			
	중졸이하	4	1%
	고졸	39	9.8%

	초대졸	47	11.8%
	대졸	267	66.8%
	대학원졸	43	10.8%
지지정당			
	새누리당	94	23.5%
	새정치민주연합	101	25.3%
	통합진보당	19	4.8%
	정의당	15	3.8%
	노동당	2	.5%
	기타 (없음, 무응답)	165	41.3%
가구소득			
	2,000만원 이하	24	6.0%
	2,001만원-4,000만원	79	19.8%
	4,001만원-6,000만원	129	32.3%
	6,001만원-8,000만원	44	11.0%
	8,001만원-1억원	44	11.0%
	1억 원이상	26	6.5%
	모름/ 무응답	17	4.3%

제2절 TV토론의 효과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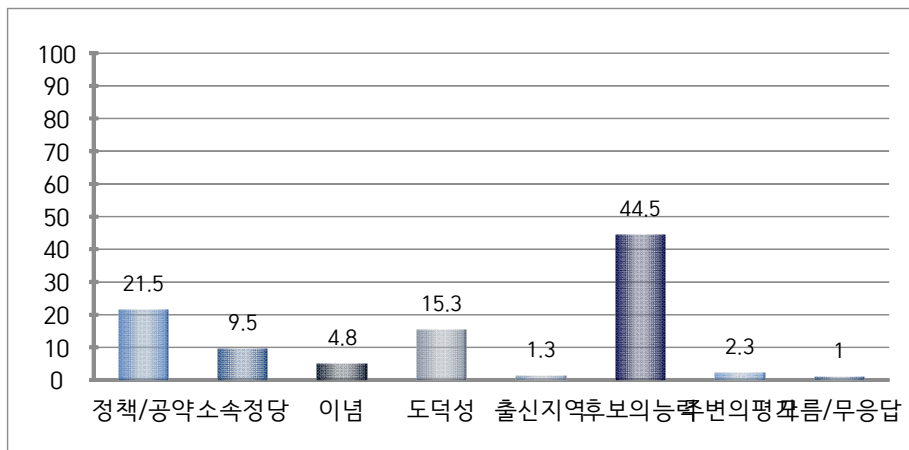
1. 토론회 시청자들의 동기

1) 후보선택 시 고려요소

설문 응답자들은 “귀하께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후보의 능력’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정책/공약’이라는 응답이 21.5%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도덕성’은 15.3%, ‘소속정당’은 9.5%, ‘이념’은 4.8%, ‘주변의 평가’는 2.3%, ‘출신지역’은 1.3%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2014년 서울시장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 요인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후보의 능력’과 ‘정책/공약’이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투표할 때 후보의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는 것은 후보자들의 개인적 능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TV토론이 바로 유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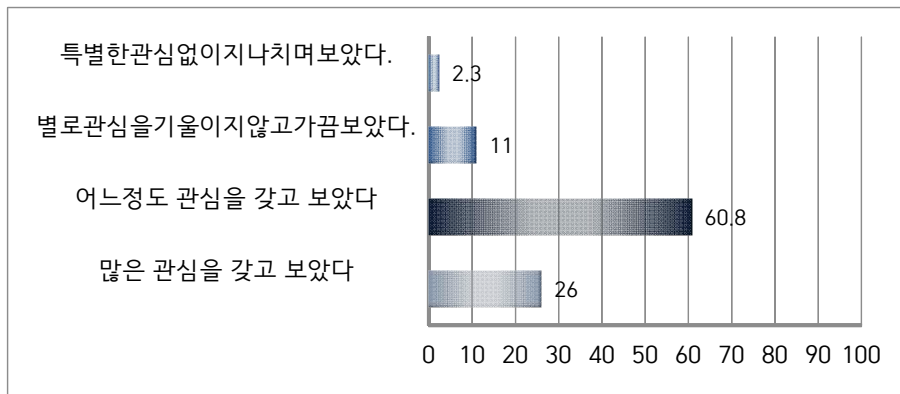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장선거 후보 선택 시 최우선 고려사항



2) TV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

지난 2014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께서는 2014 서울시장 후보 합동 TV토론회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았다’ 26%,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았다’ 60.8%,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가끔 보았다’ 11%, ‘특별한 관심 없이 지나치며 보았다’ 2.3%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400명중 후보자 TV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였다는 응답자가 86.8%였던 반면 별 관심이 없었다고 대답한 경우는 13.3%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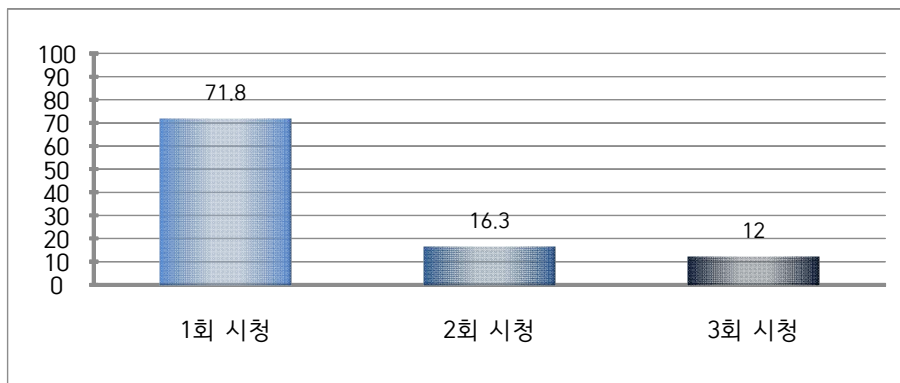
[그림 2] 후보자 TV토론회 관심도



3)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시청 횟수

후보자 TV토론회를 1회 시청한 응답자는 71.8%, 2회 시청한 응답자는 16.3%, 3회 시청한 응답자는 12%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균 TV토론 시청 횟수는 1.4회였다. 이 중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TV토론회를 시청한 이가 가장 많았으며 (66.8%), 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43%), 관훈클럽 주최한 TV토론회(30.5%)순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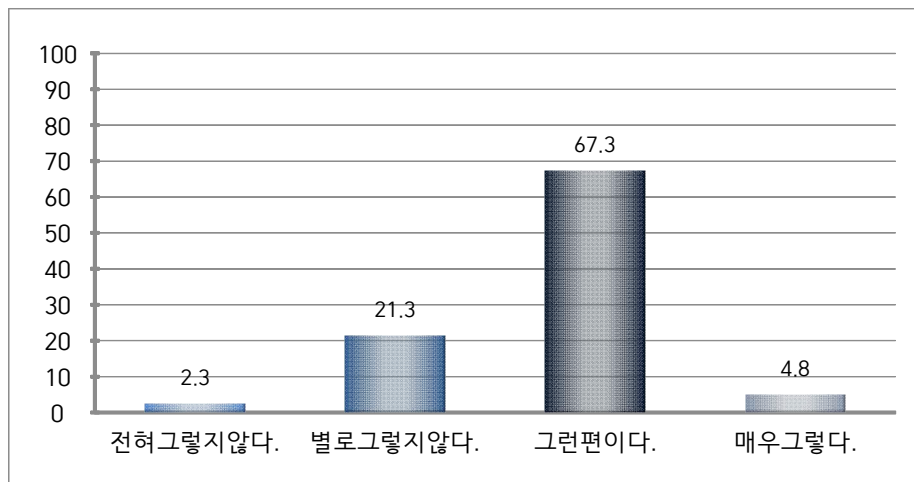
[그림 3] TV토론회 시청횟수



4) TV토론회 진행의 공정성

‘공정성’이란 TV토론 참여의 기회, 발언시간, 순서 등에서 후보자들이 얼마만큼의 동등한 대우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 2014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이번 서울시장 후보 합동 TV 토론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¹⁾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보자 TV토론회의 중립 공정성에 관하여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4.8%,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67.3%,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21.3%,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2.3%를 차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2.1%가 후보자 TV토론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27.9%가 중립적이거나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 TV토론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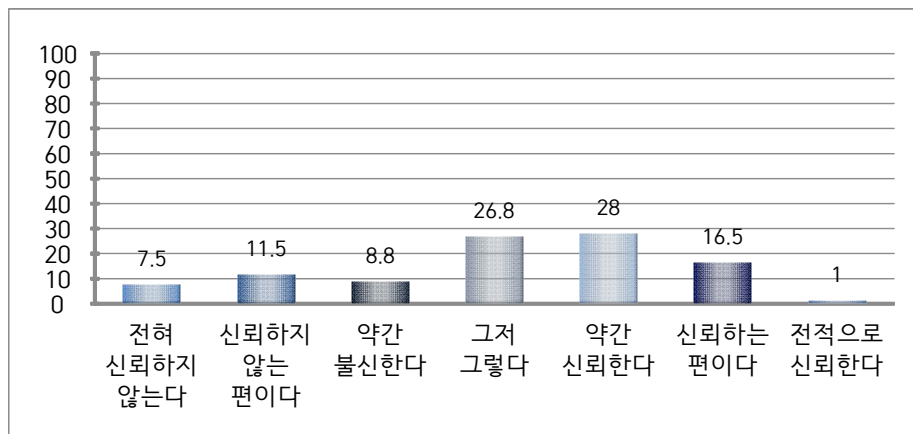


1)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4.3%였다.

5) TV 신뢰도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시청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TV토론회는 지상파(MBC) 방송이 주관하였다. 토론회가 공정했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는 방송주체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시행주체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TV토론 진행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께서는 지상파 방송(KBS, MBC, SBS)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대부분은 지상파 방송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72.3%가 지상파 방송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27.7%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5] 지상파 방송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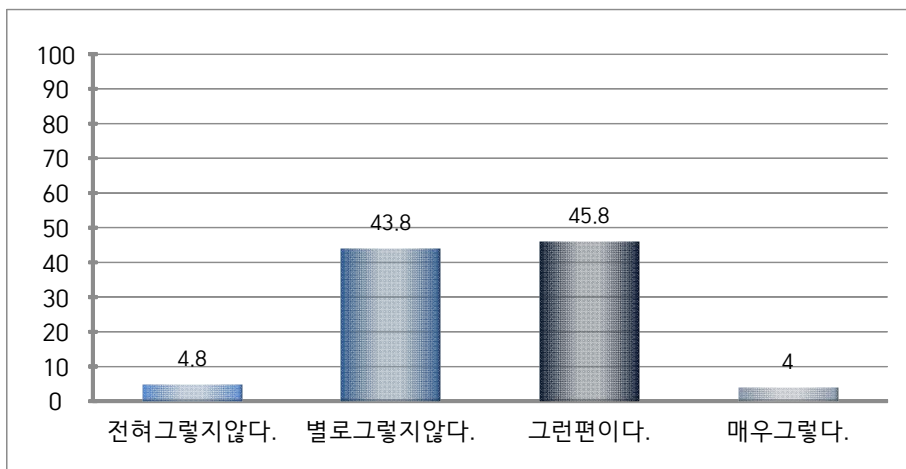


6) TV토론회의 흥미성 및 유익성

TV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는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하는데 있어서는 공정성과 아울러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효과적으로 끌만큼의 내용이 요구된다. 여기서의 흥미성은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시청

자들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의미하며, 단순한 오락성과는 구별된다. 이를 위해 “귀하께서는 이번 서울시장 후보 합동 TV 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한 결과, ‘매우 그렇다’라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이 4%, ‘그런 편이다’가 45.8%, ‘별로 그렇지 않다’가 43.8%, ‘전혀 그렇지 않다’가 4.8%로 나타났다.²⁾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시청자들이 간소한 차이로 우세했으나(49.8%가 긍정적으로, 48.6%가 부정적), 모름 및 무응답률을 종합하여 본다면 본 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청자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후보자 TV토론회의 흥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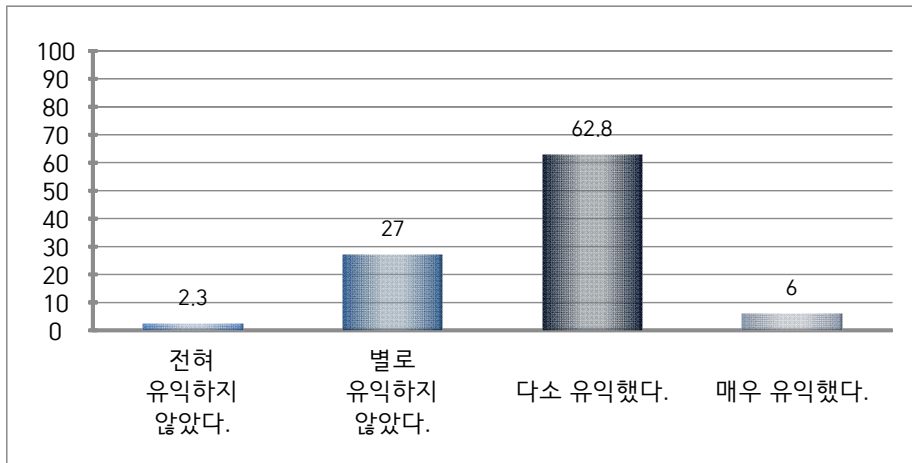
토론회 내용의 흥미성과 관련하여 절반 이하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면, 토론회의 전체적인 유익성은 어떻게 평가되었을까? TV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평가하는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반적으로 평가해볼 때 귀하께서는 이번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가 다른 정보매체들보

2)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1.6%였다.

다 유익했다고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³⁾ 그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유익했다’라는 응답이 6%, ‘다소 유익했다’가 62.8%,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가 27%,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TV토론회의 유익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68.8%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 29.3%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 정보를 위해 각 후보자의 자질 평가, 정책 공약 비교, 시정 수행 능력 비교, 정치정보와 관련한 추가적 이슈 및 지식의 획득 정도 등의 4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3%가 후보자의 자질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58.1%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8.5%가 후보자의 시정 수행능력을 비교할 수 있었다고 응답, 59.8%가 토론회를 통하여 후보자 정책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이슈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7] 후보자 TV토론회의 유익성



3)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1.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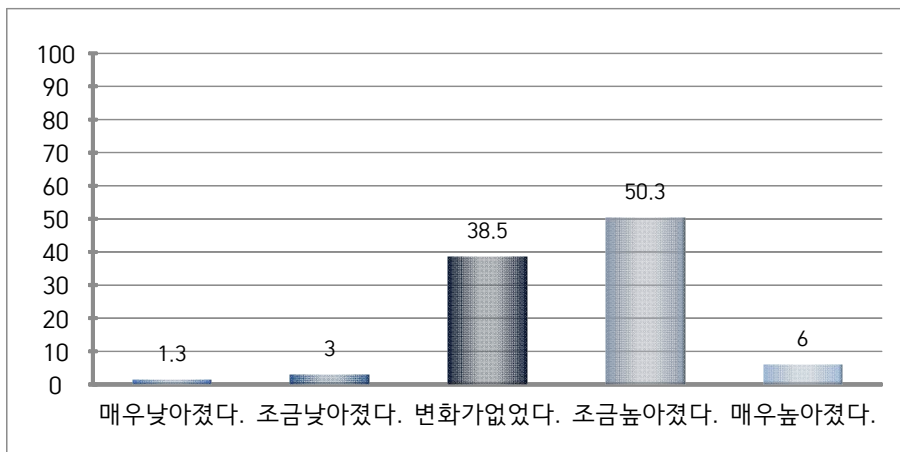
2. TV토론 효과

TV토론회는 시청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또 특정후보에 대한 투표결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유권자는 TV토론을 통해 선거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친구나 가족 등과 특정 후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늘리고 지지후보를 바꾸는 경우도 나타난다.

1) 선거에 대한 관심 증가

설문의 응답자들은 TV토론회를 보고 난 뒤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조금 높아졌다’라는 반응이 50.3%, ‘변화가 없었다’라는 응답은 38.5%였다. 전체 응답자중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56.3%)가 이번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선거에 대해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한 선거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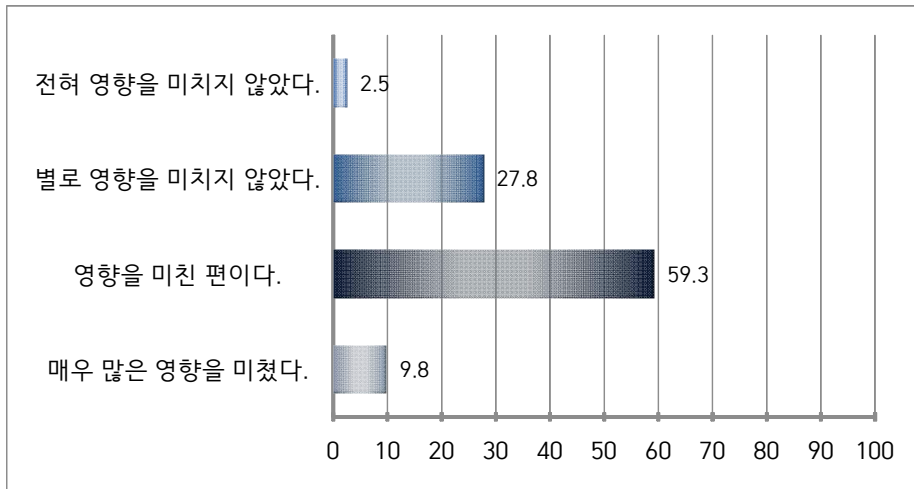


2) 후보 결정과정에 대한 영향력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TV토론회는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서울시장 후보 합동 TV토론회의 시청이 귀하의 투표 결정에 영

향을 미쳤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제시하였다.4) 그 결과,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9.8%, ‘영향을 미친 편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9.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27.8%,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2.5%로, 전체 응답자의 69.1%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TV토론회의 영향을 꼽았다.

[그림 9] TV 토론회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3) 지지후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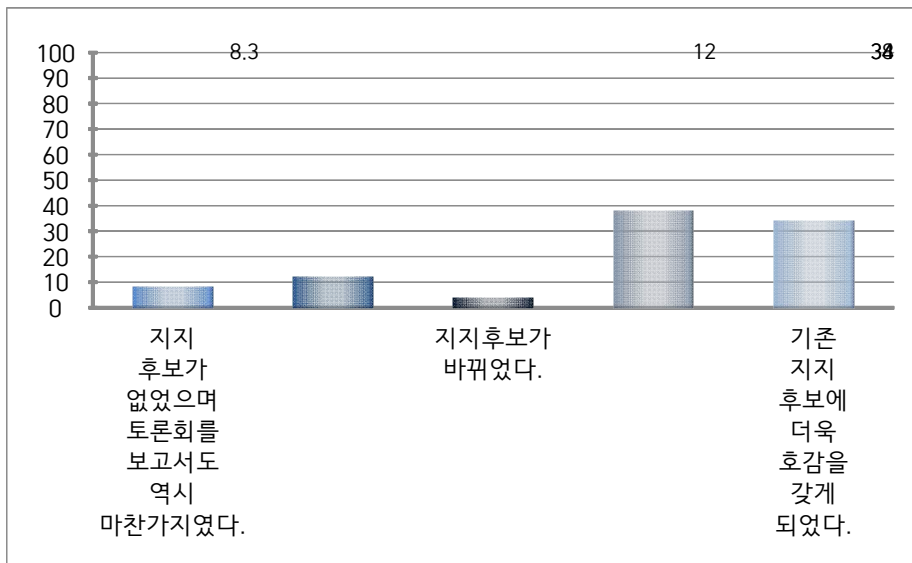
TV토론회 시청의 영향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위해 “이번 TV토론회를 시청한 뒤 귀하가 지지하던 후보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라는 질문(항5)을 통하여 시청자의 기존 투표 후보 지지도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지지후보가 바뀌었다’라는 응답이 4%, ‘토론회 이후 지지후보가 생겼다’라는 응답이 12%, ‘기존지지 후보에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응답이 34%로 실제 TV토론회를 통한 지지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응

4) 이 설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0.6%였다.

5) 이 설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을 3.8%였다.

답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반면 ‘지지후보가 없었으며 토론회를 보고서도 마찬가지로였다’라는 응답이 8.3%, ‘토론에 실망했지만 지지후보를 바꾸진 않았다’라는 응답이 38%로 TV토론회를 통한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변화가 없었던 응답자는 전체의 46.3%였다.

[그림 10] 후보자 TV토론회 이후 지지후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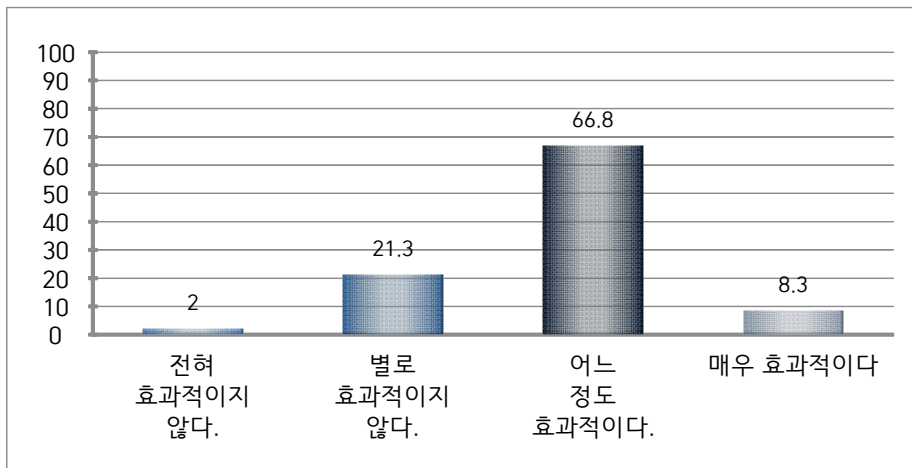
4)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유권자들이 선거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TV토론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께서는 시장 후보 합동 TV 토론회가 선거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항을 제시하였다.⁶⁾ 그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8.3%가 ‘매우 효과적’, 66.8%가 ‘어느 정도 효과적’, 21.3%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2%가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이라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6) 이 질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1.6%였다.

때, 총 75.1%의 응답자가 선거정보 획득에 있어서의 TV토론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림 11] TV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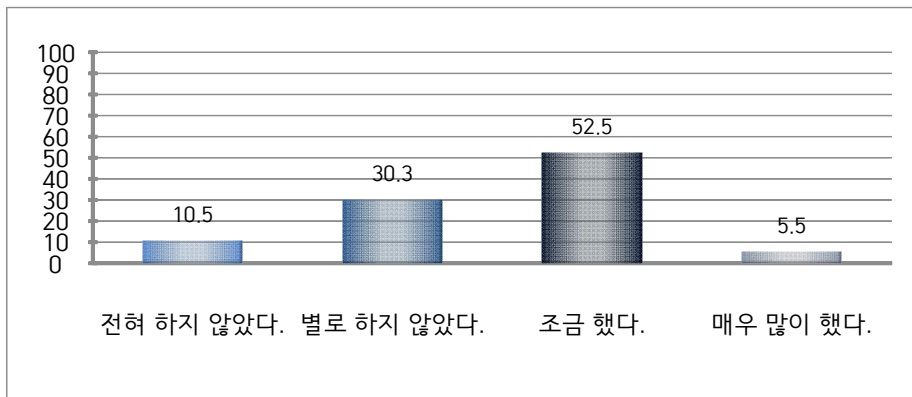


5) TV토론이후 지인들과 대화의 증가

지인들과의 대화 여부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써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후 지인들과 선거 관련 대화의 빈도를 측정하였다.7) 그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거 관련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58%)이 그렇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40.8%)보다 많았다.

7) 이 설문에 대하여 모름/무응답 비율은 1.2%였다.

[그림 12] 후보자 TV토론회 이후 지인들과 관련 대화 여부



TV토론회의 시청 횟수와 시청 관심도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두 변수 (선거 관심도, 선거관련 지인들과의 대화여부)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토론회 시청 횟수와 관심도, 그리고 유권자의 선거 관심도를 보여주는 두 변수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권자가 후보자 TV토론회를 더 자주 접할수록, 더 많이 주목할수록, 그들이 선거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표 25> 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상관관계 분석

구분	Pearson Correlation
TV토론회 시청 횟수-선거에 대한 관심도	.189**
TV토론회 시청 횟수-유권자의 선거 관련 대화 빈도	.216**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선거 관심도	.324**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유권자의 선거 관련 대화 빈도	.345**

** : p<0.01

6) TV토론회의 실제 투표의도에 대한 영향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으로 인하여 고양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실제 투표행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빈도와 응답자들의 투표 참여 의사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와 응답자들의 투표 참여 의사간의 교차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참여의사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와중 TV토론회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한 응답자일수록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매우 많았다.

<표 26>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와 선거 투표 참여 의사 교차분석

구분		투표 참여 의사				합계
		투표할 의사 없음	별로 투표하고 싶지 않음	가급적 투표할 것	반드시 투표할 것	
TV토론회 시청 관심도	특별한 관심 없이 지나치며 시청	0 0%	0 0%	5 62.5%	3 37.5%	8 100.0%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가끔 시청 어느 정도	0 0%	6 13.6%	18 40.9%	20 45.5%	44 100.0%
	관심을 갖고 시청	2 .8%	7 2.9%	90 37.2%	143 59.1%	242 100.0%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	0 0%	3 2.9%	12 11.8%	87 85.3%	102 100.0%
합계		.0% 2	2.9% 16	11.8% 125	85.3% 253	100.0% 396

$X^2=42.854$ (df=9 p<0.001)

유권자 투표 동원 효과에 이어서 후보자 TV토론회의 시청(시청 횟수와 시청 관심

도)이 실제 유권자의 투표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변인과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각각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시청 회수와 시청 관심도 모두 실제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에 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청자가 후보자 TV토론회를 자주 접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할수록 TV토론회 시청 자체가 실제 투표 후보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시청 회수와 시청 관심도 중 시청 관심도와의 상관관계수가 더 큼으로 시청한 회수 보다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였느냐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더 큰 연관이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표 27> 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투표 후보 결정 영향력간 상관관계

구분	Pearson Correlation
TV토론회 시청 회수-투표 결정 영향력	.177**
TV토론회 시청 관심도-투표 결정 영향력	.371**

** : $p < 0.01$

후보자 TV토론회 접촉 빈도 및 시청 관심도와 다양한 선거정보 효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상한 바대로 TV토론회의 시청 회수와 시청 관심도는 후보자의 자질, 공약, 시정 수행능력을 비교하는데 있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선거와 관련한 새로운 정치적 이슈와 추가적 선거정보 취득의 정도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V토론회의 시청 회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할수록 후보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새로운 정치적 이슈, 추가적 선거정보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시청자의 정치적 지식수준과 선거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TV토론회의 효과성은 TV토론회의 시청 회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던 반면 시청관심도는 위 두 변인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TV토론에 대한 주목의 정도가 강한 시청자일수록 정치지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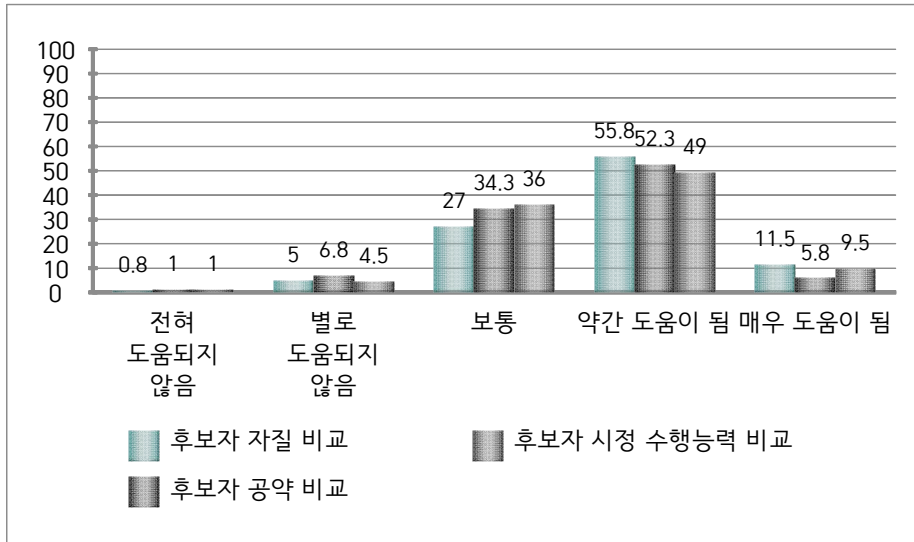
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며, 이런 이틀일수록 선거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TV 토론회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표 28> TV토론회 시청 횟수 및 시청 관심도와 선거정보 효과 상관관계

구분	Pearson Correlation
TV토론회 시청 횟수-후보자 자질 비교	.174**
TV토론회 시청 횟수-후보자 공약 비교	.137**
TV토론회 시청 횟수-후보자 시정 수행능력 비교	.166**
TV토론회 시청 횟수-새롭게 알게 된 이슈	.185**
TV토론회 시청 횟수-추가적 선거정보 취득	.247**
TV토론회 시청 횟수-정치지식 수준	.035
TV토론회 시청 횟수-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095
TV토론회 시청 관심도-후보자 자질비교	.362**
TV토론회 시청 관심도- 후보자 공약 비교	.254**
TV토론회 시청 관심도- 후보자 시정 수행능력 비교	.325**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새롭게 알게 된 이슈	.273**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추가적 선거정보 취득	.361**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정치지식 수준	.139**
TV토론회 시청 관심도-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390**

** : $p < 0.01$

[그림 13] TV토론회의 다양한 선거정보 효과



7) TV토론회 시청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치적 태도 관련 변인

TV토론회가 시청자들의 선거와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는 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이 TV토론회를 접하는 빈도(시청 횟수)와 TV토론회 시청에 있어서 몰입하는 수준(관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TV토론회를 자주 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투표 결정에 있어 TV토론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TV토론회 시청 횟수와 관심도는 유권자의 기존 정치적 태도와 관련한 여러 변인들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정치적 효능감에 따라 TV토론회를 대하는 개인들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에 관련하여 사전지식이 풍부하고, 평소 투표와 같은 정치 참여적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TV토론회를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표 29> TV토론회 시청 횟수 및 시청 관심도와 정치적 효능감 상관관계 분석

구분	Pearson Correlation
내적 효능감-TV토론회 시청 횟수	.036
외적 효능감-TV토론회 시청 횟수	.060
내적 효능감-TV토론회 시청 관심도	.274**
외적 효능감-TV토론회 시청 관심도	.215**

** : $p < 0.01$

먼저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의 중요도 즉 내적 효능감과 어느 후보가 권력을 잡는가의 중요도 즉 외적 효능감에 따라 TV토론회를 대하는 유권자들의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청자들의 시청 횟수와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정치효능감과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내적 효능감 측정 변수(내가 행사하는 한 표는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외적 효능감 측정 변수(어떤 후보가 서울 시장으로 당선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후보자 TV토론회 시청 횟수 및 관심도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우선 TV토론회의 시청 횟수와 정치적 효능감(내적, 외적 모두)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반면 TV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와 정치적 효능감(내적, 외적 모두)변수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내가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를 중시하는 내적 효능감과 더불어 ‘누가 권력을 잡느냐’를 중시하는 외적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후보자 TV토론회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표 30> TV토론회 시청 횟수 및 시청 관심도와 선거 관심도, 정치지식 수준, 투표 참여 의향 상관관계 분석

구분	Pearson Correlation
선거에 대한 관심도-TV토론회 시청 횟수	.189**
정치지식 수준-TV토론회 시청 횟수	.035
투표 참여 의향-TV토론회 시청 횟수	.101*
선거 관심도-TV토론회 시청 관심도	.324**
정치지식 수준-TV토론회 시청 관심도	.139**
투표 참여 의향-TV토론회 시청 관심도	.252**

*:p<0.05, **: p<0.01

다음으로는 정치적 효능감 이외에 TV토론회 시청 횟수와 시청 관심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고려되는 개인의 선거자체에 대한 사전 관심도, 정치적 지식수준, 그리고 투표참여에 대한 의지를 측정하고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부분의 변수들이 토론회 시청 횟수 및 시청 관심도 모두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 관심도, 정치적 지식수준, 투표 참여 의향, 이 세 가지 변인들은 시청 횟수보다는 시청 관심도와 보다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기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고 투표 참여에 대한 의지가 클수록, 정치적 지식이 높을수록 TV토론회를 시청할 때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1>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회 시행 횟수의 충분성 교차분석

구분		토론회 시행 횟수의 충분성 (3회)		합계
		충분하다	부족하다	
TV 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6 75.0%	2 25.0%	8 100.0%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67 78.8%	18 21.2%	85 100.0%
	어느 정도 효과적	197 73.8%	70 26.2%	267 100.0%
	매우 효과적	15 45.5%	18 54.5%	33 100.0%
합계		285 72.5%	108 27.5%	393 100.0%

$X^2=14.063$ (df=3, $p<0.01$)

<표 32>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회 진행 시간의 적절성 교차분석

구분		토론회 진행 시간의 적절성 (평균 90분)			합계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TV 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4 50.0%	3 37.5%	1 12.5%	8 100.0%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10 12.2%	55 67.1%	17 20.7%	82 100.0%
	어느 정도 효과적	19 7.2%	176 66.4%	70 26.4%	265 100.0%
	매우 효과적	1 3.0%	13 39.4%	19 57.6%	33 100.0%
합계		34 8.8%	247 63.7%	107 27.6%	388 100.0%

$X^2=35.962$ (df=6, $p<0.001$)

아래 표에 나타나듯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통하여 선거정보를 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 토론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정보 획득의 효과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토론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후보자 TV토론회가 선거정보를 획득하는 효과적인 매체라는데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이들 중 80%(총 295명 중 238명)는 토론진행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TV토론회 시청이 선거정보 획득에 있어서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의 경우 토론 진행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들이 75%를 차지하였고, 선거 정보 획득 효과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42%가 토론 진행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4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족도와 토론회 시청을 통한 선거정보의 효과적 전달 여부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33>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진행 방식 만족도 교차분석

구분		토론진행 방식 만족도			합계
		별로 만족하지 않음	어느 정도 만족	매우 만족	
TV 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6 75.0%	2 25.0%	0 0%	8 100.0%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34 42.0%	45 55.6%	2 2.5%	81 100.0%
	어느 정도 효과적	49 18.7%	207 79.0%	6 2.3%	262 100.0%
	매우 효과적	8 24.2%	21 63.6%	4 12.1%	33 100.0%
합계		97 25.3%	275 71.6%	12 3.1%	384 100.0%

$X^2=38.398$ (df=6, $p<0.001$)

토론 진행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의 경우, TV토론회가 선거정보 획득에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들과 비교하여 토론 진행이 공정하였다고 받아들이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정보 획득 매체로서의 TV토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들의 86%(총 289명중 249명)가 토론 진행의 방식에 대해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TV토론회가 선거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과반(56%, 총 88명중 50명)은 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모두 종합해보면, 결국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이 선거정보 획득에 있어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일부는 토론 진행이 별로 공정하게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에 있어서도 도움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 후보자 TV토론회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과 토론진행의 공정성 교차분석

구분		토론진행의 공정성				합계
		전혀 공정하지 않음	별로 공정하지 않음	공정한 편	매우 공정	
TV 토론회를 통한 선거정보 획득 효과성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3 42.9%	3 42.9%	1 14.3%	0 0%	7 100.0%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1 1.2%	43 53.1%	36 44.4%	1 1.2%	81 100.0%
	어느 정도 효과적	3 1.2%	34 13.3%	207 80.9%	12 4.7%	256 100.0%
	매우 효과적	1 3.0%	2 6.1%	24 72.7%	6 18.2%	33 100.0%
합계		8 2.1%	82 21.8%	268 71.1%	19 5.0%	377 100.0%

$X^2=135.203$ (df=9, $p<0.00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TV토론이 현대 민주주의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TV토론 그 자체가 선거관세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선거에 임할 때에는 지지정당, 후보에 대한 사전지식, 미디어의 의제, 개인의 성향 등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두 지표를 갖고 선거결과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더구나 TV토론만이 선거결과를 좌우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실험실처럼 제한된 공간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TV토론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치로 꼽힌다.

본 연구는 2014년도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TV토론을 2가지 각도에서 접근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TV토론의 형식과 주제, 질문 및 답변의 심층성 등을 살펴보면서 TV토론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TV토론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토론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근거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37.7%에 달해 제시하지 않은 경우인 62.3%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그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낮은 근거제시율은 논리적 타당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V토론을 중계하는 방송사들은 TV토론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TV토론을 그다지 시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토론의 중계시간을 프라임타임이 아니라 오후 시간 혹은 심야에 배치하였다. 또한 번두리 시간에 배치함으로써 TV시청률의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에서도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KBS와 MBC는 공영방송을 표방하면서도 시청률만 최우선하는 편성전략

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TV토론이 방송국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무시되거나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과거 언론학자들은 TV토론 방송시간대의 조정을 주장하면서 유권자들이 TV를 많이 보는 프라임타임 (오후 8시~10시)에 TV토론을 중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해왔다(권혁남, 2009; 윤종빈, 2010; 이강형, 2014). 대통령 선거 TV토론회는 그나마 프라임타임 중계가 있었으나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 TV토론회가 프라임 타임과는 거리가 먼 시간에 방영되었다. 이처럼 TV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접근성이 이처럼 제한적이라면 TV토론의 도입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토론의제에서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지역경제, 개발, 일자리 등과 같은 경제문제 등에 많이 집중되었다. 더불어 정당 및 정치문제 대한 주제들도 많이 거론되었으며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흔히들 “관피아”로 표현되는 공직자들의 낙하산 인사, 사회전반적인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타 등 시의성있는 질의와 답변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들이 오랫동안 출마를 고민해왔기 보다는 선거에 임박해서 출마를 결정하고 정당의 후보로 낙점 받아서 인지 심도 깊은 고민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질문과 답변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보다는 근거 및 자료 제시없는 질문과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 답변에서도 단순응답이나 해명 등에 할애한 경우가 정책 제시 및 대안제시 등으로 이어진 것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본 조사는 또한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TV토론 시청자 400명을 상대로, TV토론의 효과를 측정했다. 본 연구의 응답자 56.3%는 TV토론이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들의 6%는 “매우 유익했다”로, 또 62.8%는 “다소 유익했다”는 등 약 68.8%가 유익하다고 답했다. 나아가 응답자의 69.1%는 TV토론회의 시청은 자신이 투표할 후보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은 유권자들이 TV토론의 필요성과 효과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TV토론을 통해 자신의 지지후보를 바꾸겠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으며 “기존 지지후보에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34%가 응답, 지지효과가 더 크게 나

타났다. 더불어 “토론에는 실망했지만 후보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응답자도 38%에 달했다. 이는 TV토론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크게 이바지하지만 실제 지지후보자를 바꾸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TV토론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이지는 않다. 강력한 지지 후보가 있거나 정치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아직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망설이는 부동층에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 부동층의 최후 선택은 종종 투표의 결과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TV토론의 제한적 효과를 폄하해서는 안된다.

본 연구결과, 현재의 공직후보자들의 TV 토론회 횟수에 만족하거나 토론회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TV토론회가 후보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교차분석을 통해 현행 TV토론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TV토론이 공정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과 또 TV토론의 효과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들은 정치에 관심있는, 투표에 관심있는 유권자일수록 TV토론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만족감을 표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TV토론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도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즉, 향후 TV토론은 현재의 TV토론에 만족하는 유권자들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면서 TV토론에 불만족하거나 불신하는 유권자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정치체제, 정치인들에게 불만을 많은 유권자들에게도 TV토론을 통해 선거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TV토론은 이들 유권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텔레비전은 바보상자로 흔히들 알려졌다. 노래와 코미디, 예능 등 오락매체로 알려진 TV를 단순 오락제공자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선량을 뽑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자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TV토론이다. TV토론을 통해 지상파 TV는 바보상자를 굴레를 벗고 커뮤니티의 이해조정자로서, 또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사회의 절차적 과정에 이바지 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엄연히 수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방송국 스스로 편성에 있어서 TV토론에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의 TV토론은 사회자와 후보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빠져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나 후보자들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식의 타운홀 미팅과 같은 TV토론 과정에서 유권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자의 권한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 사회자는 각 토론참여자들에게 균등한 시간배분을 조정하는 역할에 그치면서 후보자가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보다는 할애된 시간 안에만 이야기를 끝내도록 중용하는 실정이다. 이는 시간의 균등배분이라는 형식적 형평성 치우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는 형식적 시간배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토론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진행능력과 함께 주제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후보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요청된다.

국내에 TV토론이 도입된 지 이제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TV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공직후보자들의 준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TV토론회는 몇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로운 미디어환경속에서 TV토론회의 위상을 점점하는 일이다. 가령, 시청자들의 80%들이 지상파 방송만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 TV와 위성방송TV와 함께 보게 된다. 즉, 지상파에서 설사 프라임타임에 공직후보자들의 TV토론을 중계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에게는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통해 다른 오락 및 교양 프로그램을 시청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더불어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사실 TV토론의 실시간 시청이라는 의미를 반감시키기도 한다. 그러하기에 다매체시대에 공직선거출마자들의 TV토론이 정치적 사회화와 유권자들의 알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공론의 장이 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모색이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 구교태, 김관규, 이준웅 (2007). 선거방송토론의 효과에 대한 연구: 2006년 대구시장 후보 토론방송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20), 203-225.
- 권성욱 (2008).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의 TV토론활성화를 위한 연구- 후보자토론회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
- 권혁남 (2009). 지방선거 후보토론의 효율적 관리,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2009년 6월 5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 권혁남 (2010) 유권자 밀착형 선거방송토론 방안연구, 『언론과학연구』, 10 (2), 5-38.
- 권혁남 (2011). 2010 지방선거에서 미디어 이용과 TV토론관심시청이 정치효능감, 투표행위에 미치는 효과연구, 『한국언론학보』, 55 (6). 126-151
- 김연중 (2008). 17대 대선 합동선거방송토론회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효과. *Speech & Communication*. 9. 167-206.
- 문성철 · 양문희 (2009). 대통령 선거 토론 프로그램 시청이 정치 효능감과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방송학보』, 23(1), 131~168.
- 박기순 (1998). 정치토론, 이동신, 박기순 편저, 『정치커뮤니케이션 원론』, 97-129.
- 박현 (2012). 미 '대선 TV토론' 사회자 선정입길, 『한겨레신문』, 2012년 8월 19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47725.html>
- 서복경 (2012). 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실시현황과 시청자층 분석. 『선거연구』, 2(2), 157-190.
- 송종길 (2002). 『2002년 대통령후보 경선 TV토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송종길 (2006). 공직후보 TV토론 이용 동기가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언론학보』, 50(6), 440-460.

- 송종길 (2006). 공직후보 TV토론. 오택섭, 권혁남, 김성태 외 『현대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나남, 207-256.
- 송종길, 박상호 (2009). 17대 대통령후보 TV토론이 유권자의 태도변화 및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6), 87-103
- 양승찬 (2003). 16대 대선 유권자 의식조사로 본 언론. 한국언론재단 주최 토론회, 『16대 대선 미디어 영향력 변화와 매체별 발전전략』.
- 윤종빈 (2010). 선거방송TV토론의 현황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8(2), 149-167.
- 이강형, 선거방송토론 10년, 성찰과 미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14년 3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 이동신 (2004). TV 토론의 개념 및 유형. 이동신 외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북스.
- 이성완 (2002). TV토론 방송의 방향과 과제, 『방송문화』, 5월호, p. 4
- 이중희, 오지양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논문집』, 67-96.
- 이준웅 (2003). 2002 대통령 선거 캠페인 보도 평가.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2003. 3.
- 이준웅 (1999). 텔레비전 토론의 정치적 영향력: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2, 253~297.
- 이효성 (1997). 『대통령선거와 텔레비전 토론』, 나남출판사.
- 정성호 (2010).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토론회 비교, 분석. 『2010 선거방송토론백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p. 294-333.
- 정성호 (2012). 제 18대 대통령 선거 경선 TV토론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특별세미나』, 2012년 9월 7일, 방송회관 3층 회의장.
- McKinney, M. S. & Carlin, D. B. (2004). Political campaign debates, Kaid, L. L. (Ed.).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pp. 203-234). LEA: Mahwah, New Jersey.